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May 4, 2017 Vol. 576



사랑의빛선교교회 임직식에서 29명의 일꾼이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임직자 되라"

사랑의빛선교교회 24주년 기념 임직예배

사랑의빛선교교회가 창립 24주년을 기념하며 4월 30일 오후 4시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에서는 3명의 장로, 1명의 명예장로, 4명의 안수집사, 21명의 권사가 임직했다.

예배는 윤대혁 담임목사의 인도로 시작됐으며 교회가 속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의 총회장인 이서 목사(미주비젼교회)가 설교했다.

이서 목사는 "복 있는 사람(시 1:1-3)"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능력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강조했다. 직분자들을 향해서는 "초심을 잃지 말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당부했다.

임직식에서는 직분자 안수 후에 임직패가 증정됐고 김재문 원로목사(사랑의빛선교교회)가 권면, 김종옥 목사(국제총회 상임총무)가 축사했다. 임직자들을 대표해 이종필 장로가 답사를 전하고 윤대혁 담임목사가 축도했다.



샬롬장애인선교회 경로잔치를 마친 후 기념촬영

샬롬선교회 경로잔치

장애인 가족 위로

샬롬장애인선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장애인 가족 초청 "제18회 샬롬경로잔치"를 한인타운 내의 한 중식당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돌보고 있는 65세 이상의 부모들 약 20여 명이 참석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었다.

선교회 대표 박모세 목사는 장애인 가족들을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의 짐을 나눠질 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연로한 분들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것이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라"고 권면했다.

한편, 샬롬선교회는 오는 7월 16일 '휠체어 사랑이야기 콘서트'를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연다. 이 콘서트는 해외 빈국의 장애인들에게 휠체어와 각종 의료보조기구를 보내기 위한 기금을 모금하는 행사로 현재까지 샬롬선교회는 17년간 34차에 걸쳐 5만명 이상의 해외 장애인들에게 의료보조기구를 보냈다.

길 위의 빛, 아프리카 사진전

아프리카 9개국 무료 개안수술 현장 담아

국제실명구호기구 비전케어 미주서부(이사장 이창엽)가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오픈뱅크 지점 및 베델한인교회에서 '길 위의 빛- 아프리카' 사진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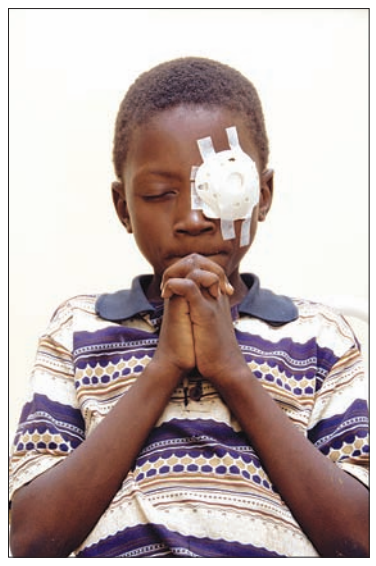
이 사진전은 비전케어가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눈을 떠요!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통해 동남부 아프리카 9개국 8000km를 종단하며, 이 과정에서 만난 아프리카 지역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길'과 '빛' 두 가지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사진전에는 프로젝트 기간 내내 동행했던 이요셉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판매되며 모든 판매 수익금은 아프리카 지역의 무료개안 수술 캠프를 위해 전액 기부된다.

사진전 오프닝 리셉션은 5일(금) 오후 6시에 오픈뱅크 웨스턴지점(550 S. Western Ave. Los Angeles, CA90020)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12일까지는 오픈뱅크 웨스턴 지점에서 사진전이 열리며, 14일에는 얼바인 베델한인교회(18700 Harvard Ave. Irvine, CA92612)에서, 15일부터 26일까지는 오픈뱅크 올림픽지점(3030 W. Olympic Blvd. #110 Los Angeles, CA90006)에서 전시회가 이어진다.

사진전에는 비전케어 설립자인 김동해 원장을 비롯해 LA 주재 에티오피아 영사 등이 함께 한다.

아프리카에는 현재 여러 국제NGO가 많은 의료 지원활동을 하지만, 대부분 영양실조, 산모 보건 등에 국한돼 있어 안과 지원은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평균 인구 100만 명당 안과 전문의가 1명에 불과하며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전세계에서 실명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에티오피아의 경우만 해도 약 8천만 명 인구 가운데 안과의사는 1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한국전 당시 유일한 아프리카 참전국으로서 비전케어는 그 은혜를 갚고자 에티오피아에 지부를 설립하고 매년 4회 방문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개안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개안 수술을 받은 아프리카 어린이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를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월~금:8am~6pm, 토: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323.734.4881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7월 15일(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6월 1일)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본지 주최 목회자 세미나에서 김상덕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예수가 나를 통해 보여지는 것이 목회"

김상덕 목사와 함께 하는 "행복한 목회 성경에서 길을 찾다"

"세상은 이미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린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 목회다."

24일 본지 컨퍼런스 룸에서 "행복한 목회 성경에서 길을 찾다" 세미나가 김상덕 목사를 강사로 열렸다.

김 목사는 "목회자는 예수의 충성된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목회자는 단순히 설교를 통해 예수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도가 한 명이라도 그 성도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란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둠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빛을 통해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를 만날수록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다스리는 것이 목회요, 그러기에 내 힘으로 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엘에이 지역을 넘어 뮤리에타 지역과 옥스나드 지역 목회자들도 참석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김 목사가 시무하는 복음장로교회는 2007년부터 불교권인 캄보디아와 미얀마 지역을 선교해 무려 76개의 교회를 세웠다.

한편, 김 목사와 함께 하는 "행복한 목회 성경에서 길을 찾다" 2번째 세미나는 5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본지 컨퍼런스 룸에서 열릴 예정이다.

리스장의사 오픈 예배… 서류미비 장학생 모집 중



리스장의사가 4월 29일 오픈 예배를 드렸다.

리스장의사(대표 이동주)가 지난 4월 29일(토)에 오픈 예배를 드렸다. 예배에 앞서 이시용 장로가 인사했다. 이 장로는 31년간 비행기 부품 회사 엔지니어로 일하다 4월 28일에 퇴직하고 29일부터 리스장의사 회장으로 일하게 됐다.

이 장로는 "전날과 오전에 심한 강풍이 불었는데 오픈 예배에 바람 한 점 없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죽는 날까지 열심히 일할 것이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 복을 많이 주셨다"고 인사했다.

예배에서는 나성교회 정동성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정 목사는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시작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삼일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죽어야 생명을 맺는다"라는 말씀을 전했다. 축도는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가 했다.

오렌지카운티에 한인 최초로 장의사업을 하게 된 이동주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서류미비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자 1만 불의 장학금을 6월 10일 지급할 예정이다. 5월 30일까지 자기소개서를 보내면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 20명에게 각각 500불을 지급한다.

아름다운 정원과 채플이 갖추어진 리스장의사는 1,000대의 동시주차가 가능한 규모의 파킹장이 있다.

주소)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문의) 714-469-1040

권 셸비 기자



한인가정상담소가 위탁가정 설명회를 동양선교교회에서 연다.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주세요

한인가정상담소, '둥지찾기' 설명회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위탁아동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둥지찾기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둥지찾기 설명회는 오는 5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린다. 위탁가정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과 필요한 교육 과정, 정부 지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8세 이상 성인으로서, 아이가 머물 수 있는 방을 제공할 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일정 교육 과정을 거쳐 위탁부모가 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위탁자녀를 돌보고 있는 부부와 과거 위탁가정에서 자라 성인이 된 여성이 참석해 위탁가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위탁부모들은 위탁가정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자신들의 경험, 위탁자녀들을 돌보면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위탁가정 출신의 여성은 위탁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불우했던 환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은 위탁가정 부모를 만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 경험담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재인 둥지찾기 프로그램 매니저는 "2017년부터는 36시간이었던 교육과정이 20시간으로 줄어들어 위탁가정이 되고자 하는 부모들이 거쳐야 하는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면서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리는 둥지찾기 세미나에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탁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LA 카운티에는 평균 3만5000명의 아이들이 친부모와 살 수 없어 아동보호국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중 아시안은 680여 명, 한국계는 60~1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2014년 '둥지찾기'를 처음 시작했으며, 한인 어린이들만이라도 한인사회에서 보듬어 안아야 한다는 한인사회의 관심 속에 현재 32가정이 위탁가정 자격을 갖췄다. 이 가정들은 한인은 물론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으며, 지난 2년여간 12명의 아이들이 입양됐다.

이번 둥지찾기 설명회에 참석하려면 예약해야 한다.

문의) 213-235-4868

"우울증, 추락하는 내 마음" 세미나

한인기독교상담소(소장 김화자)가 5월 한 달간 4주에 걸쳐 '우울증, 추락하는 내 마음'이라는 세미나를 연다.

상담소 측은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 불릴 만큼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오지만 제대로 돌보고 관리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이나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우울증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대처 방안을 알아보고 자신의 정서적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등록비는 25달러이며 LA 지역(500 Shatto Pl. #501 Los Angeles)은 5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OC 지역(7342 Orangethorpe Ave. #A103 Buena Park)은 5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각각 진행된다.

문의) 213-738-6930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미 서부지역 한인교회 연합
통일선교 CONSULTATION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마 25:13)

미서부지역 한인교회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반도에 반드시 통일을 주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한반도에서 통일시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통일 시와 통일 이후 어떤 사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거나 분명하게 아시길 원하시는 분들을 이번 컨설테이션에 초대합니다.
※ 지금까지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한반도 복음통일을 위한 총체적이며 유기적인 성경적 바른 통일선교의 비전과 방향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장 소 :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채플(은혜한인교회 미라클센터 1층)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일 시 : 5월 15~16일(월요일 9AM ~ 화요일 4PM)
▪대 상 : 미 서부지역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 평신도 사역자
▪인 원 : 선착순 100명
▪회 비 : 무료 (맛있는 점심, 저녁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주 관 : 통일선교전략협의회
▪문 의 : 714-484-0042
▪주 최 : KRIN GLOBAL 남가주목사회, 오렌지교회협의회,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서부지부, 그레이스미션대학교

ANC온누리의 또 다른 변화

김태형 담임목사와 마이클 리 목사
1.5세 – 2세 팀사역 시작


마이클 리 목사와 김태형 담임목사

ANC온누리교회가 차세대를 위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한인교회에서는 드물게 '공동목회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ANC는 유진소 목사가 한국으로 떠나면서 지난해 10월 23일부터는 김태형 목사가 단독으로 담임하게 됐지만 6개월 만인 4월 23일에 마이클 리 목사가 이 교회 EM인 ANCC의 담임으로 취임하면서 또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됐다.

원래 ANC의 공동목회 시스템은 두 명의 목회자가 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입장이란 전제 하에, 낀 세대라 할 수 있는 1.5세를 적극 활용하는 형태였다. 유진소 목사는 1세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교회를 이끌어가고 김태형 목사는 2세를 중심으로 목회했지만, 김 목사는 유 목사와 6년간 동역하면서 1세 목회에도 참여하고 한국어 예배에서 설교도 자주 하면서 사실상 1세와 2세의 장벽 없이 목회했다. 덕분에 교회를 개척하고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유 목사가 떠난 후에도 교회는 큰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

이번에 ANC는 ANCC(All Nations Community Church)의 담임(Lead Pastor)으로 마이클 리 목사를 임명했다. 마이클 리 목사는 전형적인 2세로, 김태형 담임목사와 이미 3년 이상 함께 사역해 오고 있다. 그의 취임과 함께 ANC는 1세-1.5세가 이끌던 교회에서 1.5세-2세가 이끄는 형태로 변했다. 공동목회에서 팀목회로 성격도 다소 바뀌었다. 교회 전체는 김태형 담임목사가 이끌고 그 가운데 EM은 마이클 리 목사가 담당하는 형식이다.

김태형 목사는 "제가 담임이지만 서로의 장점을 세워주고 단점을 보완하는 팀사역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EM에 꼭 필요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마이클 리 목사에게 권위와 책임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EM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을 지향하겠지만 그것은 성도들 간에 더욱 많은 이해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답했다.

김 목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지만 가장 합당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복음이 선포되면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면서 "교회 모든 구성원이 복음 안에서 소통하며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형 기자



본사 사업국이 아프리카에 제1차 사랑의 우물을 팠다.

본사 사업국, 아프리카에 우물 개발

기독일보가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인 르완다의 루린도 마을 주민들을 위해 우물을 팠다. 본사의 한대명 사업국장이 수개월의 사전 준비 끝에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곳을 직접 방문해 우물 개발을 진행했다.

사업국은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이번 우물 개발 기금을 마련했으며 향후 이런 봉사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 국장은 이번 방문에 겸해 르완다 지역을 탐사하며 주민들의 삶에 어떤 실질적 필요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한 국장은 "도움 받는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게 하는 기독일보만의 봉사를 계획 중"이라며 남가주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다.

한 국장은 "'선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한다. 그들이 '당신들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합니까'라 물으면 그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봉사와 선교를 통합하는 모델을 기획 중"이라고도 했다.

조이기독교서점 30주년 맞이
창고 대방출 할인 이벤트

조이기독교서점이 30주년을 맞이해 창고 대방출 할인 판매 이벤트를 펼친다.

구 미주복음방송 사옥 4층(621 S. Virgil Ave. #410 Los Angeles, CA 90005)에 위치한 조이서점은 이번에 다양한 기독교 서적들을 할인 판매하며 특히 영문 신앙서적은 50%나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풀핏성경주석과 베이커성경주석 등은 권당 9.99달러로 할인됐으며 카리스종합주석은 권당 19.99달러다.

조이서점은 한인 신학교들의 각종 교재들도 특가에 판매하고 있으며 성경과 찬송은 50% 할인된다. 100달러 이상 구입시 추가 할인 혜택이 있다.

문의) 213-380-8793

퍼시픽 로스쿨
오병익 이사장 취임

지난 4월 27일 오병익 목사(남가주벧엘교회)가 인터네셔널 퍼시픽 로스쿨(총장 하워드 리, 3055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며 오 이사장은 "법을 다루는 인재들의 발굴과 학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병익 이사장의 취임식이 한인타운 내 한식당에서 27일 열렸다.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16〉

아프리카의 소금이 되게 하소서(1)



이 상 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아프리카의 소금이 되게 하소서."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김세현 선교사와 노미정 선교사 부부의 소망이다. 먼저 그의 일기편지를 일부 적어본다.

"1.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이다. 어린이 교회 교사들과 신년 하례회를 하면서 지난해를 돌아보며 부족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새로 추진할 점들을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가르치는 현지인 교사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진 모습에 감사한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 치는 모습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2. 감사하다. 겨우 일년밖에 안 된 어린이 교회이지만 초가 지붕으로 된 예배당에 300명 이상, 어느 땐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어린이들이 몰려들어 쩔쩔맨 적도 있다. 이제는 교육공간이 더 세워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한국의 한 교회가 예배처소를 지어주어 감사하다.

이제는 현지인 목사님과 교사들 5명이 분반하여 성경을 가르친다. 여기 교회학교는 부모들이 수업 내내 뒤쪽에 서 있는다. 아이들이 성경학교에서 배운대로 날마다 집에서 성경을 읽고, 툭하면 싸우던 형제끼리 싸움도 줄고 사이가 좋아졌다고 부모가 좋아한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가 아프리카 대륙의 다른 주일학교들을 도우며 모델이 되고 있음을 감사한다."

"3. 아내 노미정 선교사와 막내아들 준형이가 동네 축구 친구들과 시작한 Grace Bible Club이 이렇게 안정되게 자라게 되었고 좋은 교사들이 배출되는 기반이 갖추어져서 여간 감사가 아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교회학교의 희망을 본다."

십 여년 전 그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던 모습이 기억난다.

"이젠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거야."

청소년기의 두 아들을 미주에 남기고 늦둥이로 낳은 신나는 바람돌이 같은 어린 준형이를 데리고 갔다. 그들은 그렇게 어린 자녀들과의 헤어짐 앞에서 웃지도 않았지만 울지도 않았다.

많은 선교사들이 겪는 자녀와의 헤어짐은, 보내는 자들에게 얼마나 가슴이 저미는지 모른다. 그리고 고개가 숙여진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가는 그 길, 그 마음! 앞으로 2회에 걸쳐 아프리카의 소금 김세현 선교사의 사역을 이야기 하겠다.



김세현 선교사 부부가 사역하는 아프리카 우간다 주일학교 모습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교회의 사회개혁 활동 (IX)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예나 지금이나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는 나병이다. 지금은 의학이 발전되어 좋은 나병 치료약이 많이 나왔고,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나병원이 따로 있어 일반 환자와 격리해 별도로 치료하고, 돌보았으나 요즘은 일반 피부과 병동에 입원 시켜 진료하고 있다.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나병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나병을 당시에는 문둥병이라 했고, 나병환자를 문둥이라며 차별하며, 무서워했다. 국가가 이들을 치료하고 보살필 여유가 없어, 이들은 스스로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므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걸을 해 생명을 유지했다.

나병은 천형의 병으로 일컬어져 일단 감염되면 가족과 이웃과 동네에서 완전히 버림받는 무서운 병이었다. 살던 집과 동네를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이들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 그대로였다.

이렇게 불쌍한 나병환자들을 눈여겨보고, 이들의 병을 치료해 주고 고쳐주기 위한 사역을 시작한 선교부는 미국 북장로교회였다. 1904년 선교부는 어빈(C. H. Irvin, 魚乙彬)과 빈턴(C. C. Vinton, 賓頓), 그리고 스미스(W. E. Smith, 沈翊舜) 세 의사로 하여금 나병 진료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케 하고 구체적 플랜을 세우게 했다. 1907년 인도 나병퇴치 선교부가 한국에 나병환자 치료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 돈 400파운드를 보내 주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1909년 부산에 처음으로 나병환자 수용소가 세워졌는데 이듬해 20명의 환자가 각지에서 모여들어 수용됐고, 1911년에는 40명 이상 환자가 수용됐다. 1914년 각 선교부가 지역을 나누어 선교하자는 예양협정(Comity Plan)을 맺음에 따라 본디 미국 북장로교회 구역이던 부산 지방을 호주 장로교회가 맡게 됨에 따라 호주 장로교회 선교부로 이양되면서 자연히 나병원 사업도 함께 이양됐다. 호주 장로교회 선교부는 당시 80명이 넘는 나병환자가 수용된 병원을 인수해 의사며 목사인 매켄지(J. N. MacKenzie)에게 관리를 맡겼다.

한편,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도 이 일에 나섰다. 1909년 전남 목포에서 의료 사역을 하던 포사이드(W. H. Forsythe, 保衛廉)가 광주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벨(Eugene Bell, 裵裕祉)이 급환에 고통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치료하기 위해 광주로 가게 됐다. 그가 광주로 가던 중 길가에 버려져 죽어 가는 한 여성 나병환자를 발견하였다. 그는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려 그녀에게 자기가 입었던 털외투를 벗어 입혀 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말에 태워" 광주 기독병원의 구석진 방에 입원 시켰다. 그러나 나병환자가 자기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함께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환자들이 격렬하게 항의를 했다. 병원은 어쩔 수 없이 근처 외딴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녀를 그곳으로 옮겨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선교부는 나병환자 치료를 위한 특별사업을 계획했다. 광주 기독병원장 윌슨(R. M. Wilson, 禹一善, 禹越遜)은 나병환자 치료를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교섭으로 영국 에딘버러(Edinburgh)시 나병협회에서 미화 2천 달러를 보내 주었다. 그는 이것을 기초로 나병원을 건축하고 나병치료를 위한 본격적 사역에 나섰다. 이후 나병원은 여러 선교부의 지속적 관심으로 경북 대구, 전남 순천(애양원) 등지에 세워져 천형의 병을 앓는 이들에게 육체의 병을 치유해 주었을 뿐 아니라 영혼의 병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에 진력하였다.

이렇게 각 선교부가 나병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오자, 장로회 총회도 나병에 특별 관심을 표하고 총회적으로 나병퇴치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하기로 결정했다. 제12회 총회는 12월 첫 주일을 나병원을 위한 연보주일로 지킬 것을 결의했다. 제14회 총회는 30년 후에 나병 완전 박멸을 목표로 근멸회(勤滅會)를 조직, 발기하였다.

나병환자를 위해 애쓴 한국 목사가 한 사람 있다. 그는 그의 호 오방(五放)으로 더 알려진 최흥종(崔興琮) 목사로 전남 광주에서 사역했다. 최 목사는 선교사 포사이드의 나병환자 사랑에 감격해 일생을 나병환자를 위해 살았다. 그는 나병환자 진료를 위해 당시 유지들인 윤치호, 김성수, 김병로, 안재홍, 이인, 백관수 씨를 찾아가 협조를 얻어 나병근절협의회를 만들었다. 당시 민족 3지, 동아, 조선, 조선중앙일보 등의 협조를 얻어 나병환자를 위한 모금운동을 적극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모금 액수가 4만 원에 이르자 조선총독부는 이에 자극 받아 나환자 근절협회로 이 기금을 인수하게 하여 소록도에 나병원을 설치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나병원을 위해 일본 왕실과 총독이 지원금을 보내주었다는 사실이다. 1923년 왕실은 대구병원에 미화 220달러를, 조선총독은 3,500달러를 헌납했다. 그리고 1930~1935년 사이에 왕태후가 매해 1,000달러를, 그리고 1932년에는 6,000달러를 은급으로 지원해 주었다. 온 민족을 수탈 대상으로 삼아 온갖 포악을 자행하던 일제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병치료를 위해 지원금을 준 일은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런 돈을 받아 병을 고쳐야 하는 우리 민족의 비애는 참으로 크고 애처로웠다.

천형의 병으로 여기고 가족조차 경원하던 가련한 나병환자를 거두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고 돌보아 준 초기 선교사들의 위대한 사역은 아무리 찬하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일찍이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도 많은 나병환자를 고쳐주신 기록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준 초기 선교부와 선교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후세 그리스도인들의 당위다.

〈계속〉

La Mirada Garden Florist
라미라다 가든 꽃집
Flowers For All Occasions
Serving OC and LA Counties since 1969
라미라다 가든 꽃집은 35년 넘는 경험, 노하우,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감각의 꽃으로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꽃집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그리고 모든 이벤트를 아름다운 꽃과 서양란, 각종 화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배달 해 드립니다.
www.lamiradagarden.com
lamiradaflorist@gmail.com
Tel. 714) 521-0901, 800) 645-1114
14794 Beach Blvd., City of La Mirada, CA 90638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스 장학생 모집
리스장의사가 커뮤니티의 미래와 함께합니다
리스장학생 모집
리스장의사가 반이민 정책에 힘들어 하는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모든 한인 학생과 부모님을 위해 리스장의사와 같은 작은 기업들도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것을 알리고자 장학금을 준비 했습니다.
목사님, 신부님등 사회지도자들의 추천장과 학생 본인의 현재 상황, 꿈과 희망을 담은 한글 자기 소개서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한 학생당 $500, 20명에게 총 $10,00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접수자격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한인 학생
이메일접수처 HR@leesmortuary.com
접수기간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발표 6월 5일 개별 통보
지급일시 6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지급장소 리스장의사 City of Orange 본사
홈페이지 www.leesmortuary.com
최저가격 보장제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의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장례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무료출장서비스
■ 고인의 교회, 자택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1000대 동시주차 규모의 넓고 편리한 파킹 / 아름다운 채플 / 깔끔하고 안락한 분위기
시카고 스미스 코코란 185 EAST NORTHWEST HIGHWAY, PALATINE, IL 60067
아틀란타 리장의사 4067 INDUSTRIAL PARK DRIVE NORCROSS, GA 30071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Since 1966
리스장의사
Lee's Mortuary FD1164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13-2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본문 눅14:13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14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15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6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매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19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20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21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2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23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초대한 그 집 주인은 예수님을 존경해서도 아니고 은혜받기를 기대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 고창병 걸린 자가 있어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그를 고쳐 보내시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멀쩡한 바리새인의 두령이나 그 집에 초대된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이 고창병에 걸린 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서둘러 고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적 의식에 사로잡혀 교권행세만 일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행하고 계시는 은혜계약의 성취라는 사랑의 은혜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에 그들의 영적인 소망은 아직도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교훈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날 초대받아 그 집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 주인이 바리새인의 두령이었기에 주로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스스로의 지위나 명분을 사회적 지도층 인물로 자처했기에 초대를 받아가면 의례히 자신들은 상석에 자리를 잡아 앉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그날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14:8-11)"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눅14:12-14)"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셈을 합니다. 자신에게 더 유익한가를 따지고 그 셈에 따라 투자하며 살아가는 처세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더하는 것이 곧 플러스(+)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세상 조건으로 허락받은 모든 여건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너머에 영원히 저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19-21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두령은 이 세상 조건이 자기의 자랑거리이며, 기대할 만한 것으로 여겨 세상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대접을 받으며 행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지위를 갖추고 부유한 사람들을 청해서 자신의 수준을 그 사람들의 지위에 곁들여 더 높여 보여지기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14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천국에 대한 기대를 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을 청하라는 말씀에 어떤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심코 던진 말이겠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설교 재료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고는 그 종을 보내어 잔치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세상조건을 핑계하며 사양을 합니다. 이에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에게 이르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종이 말씀대로 했지만 그래도 빈자리가 많다고 전하니 그 주인은 "길과 산울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대장을 보낸 자들은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길에 다니며 누구든지 청하여 오게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제는 때가 임박했기에 강제적으로 끌고 오더라도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악하고 선함을 스스로 구분하지 말고 그 사람의 형편, 처지에 상관없이 강권하라 하십니다. 영을 살피시는 예수님 심정의 기준은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유식과 무식의 차별이 없으며, 부유함도 가난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사명입니다. 누가복음 14:24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는 말씀은 처음에 복음으로 초청하셨을 때 순종하는 믿음의 지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그 집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세상적 기대와 꿈에 도취되어 속물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양함으로 주어진 기회를 다 놓치게 되면 다시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너머의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세상조건만 생각하다가 결국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갈며 후회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적극성을 띄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전도의 사명감으로 불붙어야 나가서 뜨겁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 내세소망의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의 내 입장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조건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살면서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의 모습으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입으로는 늘 천국 복음을 말하지만 생활하는 것은 세상조건의 더 나은 것을 바라는 모습만 보인다면 오히려 전도의 역효과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전편에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천국을 위해 사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Since 1999

www.e-nca.org



LA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가을학기 학생모집 K-9th
썸머 스쿨 6/5(월)~7/28(금)



New Covenant Academy
Now Available On

무료 앱 다운로드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1,350점 기록(일반 학교 평균 1,000점)
- 지난18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운영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 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행복재단에서 풀타임 직원을 구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8:7)

**나의 모습을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 **행복재단의 풀타임 직원을 구합니다.**
  - 컴퓨터와 영어능력 있는 분
  - 재능을 전수 및 기독상담 봉사하실 분
  - 관절염 환자 한약 분 30분 무료(싯가 $80.00) 선착순 배부(건강원 기부)
  - 뱅크럽시 변호사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 (Chapter 7 변호사 비용 $350.00)

행복재단(Be Happy Foudation)
Tel.(213)545-4787(오후1시~4시)
981 S. Western Ave. #300A, LA, CA 90006
email:bhfhelp@gmail.com

부 교역자 청빙

**L.A 한인타운에 웨스턴과 3가에 위치한
올리브나무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에서
아래와 같이 부 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수석 부목사 1명 (교육, 전도)
전도사 2명 (한어 청년부1명), (어린이부 1명)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 dsbio@yahoo.com (이력서 1장만 보내시면 됩니다)
기타문의: T.(213)300-9762

예배안내

주일 성인 예배	주일 어린이,청소년 예배	목요예배
1부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7시
2부 오전 11시	오후 1시	
3부 오후 1시		

올리브나무교회

J.C 의료 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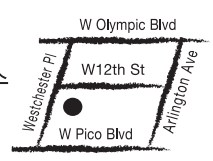
수술하기도 애매하고 약을 먹어도 별 치료를 다해도 애를 먹이는 **고질병, 손목관절, 허리통증, 어깨통증, 다리관절, 이명, 고혈압, 목 아픈 갑상선, 고엽제 환자** 신기하게 치료됩니다.
30명 선착순 선교차원에서 무료 치료합니다.
- 국제 침술사 제임스 남

30명 선착순 무료 치료

열쇠 기술 속성반 모집

1년은 배워야 하는 과정이나
3개월 안에 연수, 졸업장, 자격증을 드립니다.
- 극히 작은 장소에서 영업 가능
- 극히 작은 자금으로 영업 가능
-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자영업

미국 학교에서 정식 연수한 최고 기술로써
40년간 경력이 있는 열쇠 세계 최고의 고수
김재홍 선생이 직접 전수합니다.



연락처 : T.(213)298-8384, T.(907)229-5577
주 소 : 1232 Westchester Pl, LA, CA 90019

나의 자랑은?



김 지 성 목사
글로발선교교회

'게티센터'는 LA가 왜 세계적인 도시로 인정받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게티센터는 LA다운타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서북쪽 브렌트우드 언덕 정상에 유백색의 건물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티센터에서 내려다보는 LA 메트로폴리탄의 전경은 아름다움의 극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심혈을 기울여 설계한 모던한 분위기의 게티센터는 주변의 풍광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예술 작품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 줍니다. 1984년에 착공해서 1997년에 완공했으니 건축 기간만 13년입니다. 건물 외부를 싸고 있는 건축 자재는 유리, 에나멜로 표면 처리한 알루미늄, 그리고 화강암과 대리석의 중간 단계 정도쯤 되는 '트라버틴'이라는 이탈리아산 고급 석재가 주 자재입니다. 건축 비용만 13억 달러 정도가 들었다니 건물의 가치와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티센터 전시실에는 빈센트 반 고흐, 에두아르 마네, 에드가 드가, 폴 세잔, 에드바르트 뭉크, 램브란트 등 미술사에 보석처럼 존재했던 세계적 명장들의 작품 450점 정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은 석유재벌이었던 폴 게티가 평생에 걸친 수집품이며, 이후 폴 게티 재단은 계속해서 세계적 걸작품들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2014년 뉴욕의 미술 경매에서 19세기 프랑스 인상파 화가였던 에두아르 마네의 '봄'이라는 작품은 6천500만불에 게티센터로 낙찰된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가의 미술작품이 450여점 이상 소장되어 있는 곳이 게티센터입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건축한 건물도 장관이지만, 이 건물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역사적 걸작품들도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게티센터 하면 무엇을 연상하게 될까요? 웅장한 건물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소장된 미술작품일까요? 게티센터의 소개책자에는 건물이 아닌 그 안에 소장된 작품들이 표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건물 하나만으로도 LA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라 여기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게티센터의 소개책자는 에두아르 마네의 '봄', 렘브란트의 '군복 입은 노인', 에드가 드가의 '기다림' 또는 반 고흐의 '아이리스' 같은 미술 작품이 정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가치도 거의 천문학적 수준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게티센터의 가치는 건물보다 소장하고 있는 미술 작품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지어진 웅장한 건물에 비하면 보기에 따라 별 것 아닌 것 같이 여겨질 작은 액자 속의 미술 작품들이 더 가치를 드러냅니다. 게티센터는 건물을 자랑하기보다,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아야 할까요? 사람에 따라 가치관이 다르니 자랑거리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가치있게 여기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력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인생의 표지를 장식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분명합니다. "나의 인생 표지에 올려놓은 것은 어떤 것일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되새겨 보아도 내 인생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가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빠져 있는가



김 성 민 목사
팰리세이드교회

1990년대 초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며 사역할 때에 섬기던 교회 담임목사님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나 뵌 지 7-8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래 전 8년 가까이 배우고 섬겼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의 장점과 단점을 전부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한국의 상황과 사역, 그리고 미국의 상황과 사역들을 알려주셨고, 이전에 들었던 부분들도 많았지만 전에 듣지 못했던 그 목사님의 간증들도 나에게 도움이 되라고 들려 주셨습니다.

그날 하신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는 아무래도 목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오래 전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미국에 오셔서 3개 교회를 섬기며 경험한 일들 그리고 수년 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신학교 총장을 몇 차례 하시면서 그 가운데 깨달은 귀한 말씀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 가장 크게 도전이 되었던 것은 얼마 전 자신의 과거 설교 테이프들을 몽땅 버리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에 했던 설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겠지만 80이 넘은 지금 그 설교들을 다시 들어보니 도저히 낯이 뜨거워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자존심이 매우 강하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선두에 가시던 분이신데 지금 자신을 돌아보니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살았는지 부끄럽다고 하시는 겸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걱정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빠진 설교와 목회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성도들의 귀가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하십니다. 목사는 군림을 하고 교회는 사업이 되며 성도는 예식에 빠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먼 후배인 저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말씀을 해 주고 가셨습니다.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분의 깨달음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나 스스로에게 "과연 나는 예수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목회에 빠져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보다는 목회에 흠뻑 빠져 있는 나 자신을 깨닫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종교 예식에 빠져 있는가?" 10년 후에 지금을 돌아볼 때 후회 없는 믿음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마태복음 24장 37절)고 하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곧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잦은 지진을 경험하며 큰 지진을 대비하는 것 같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가리키며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믿음 생활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모두 빼앗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후회 없는 행복한 은혜가 늘 나의 마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독으로부터 깨어나십시오



정 기 정 목사
샘물교회

자국민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대통령들이 많은데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前 대통령입니다. 그는 백인 정권에 맞서다 그들의 모함과 핍박으로 44세부터 72세까지 27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원한이 뼈에 사무칠 기간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석방된 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드디어 보복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사 청산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백인들을 용서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미소 지으며 용서와 화해를 선포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서가 한 나라를 평화롭게 했습니다. 세계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용서는 평화의 선포입니다.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상처를 덮어 치유합니다. 용서는 징벌보다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인간 내면의 혐오스런 분노를 표출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처형을 당하는 죄수들은 피가 말라가며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온갖 더러운 말들로 저주하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동정심을 받기는커녕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철저히 외면당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십자가 처형의 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 수 백명을 십자가 처형해 본 백부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금 세상에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아픔이 들려옵니다. 피해를 당한 것도 가슴 아프지만 피해자들이 독을 품고 더 악한 모습으로 무너져가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한가지 특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놓아줍시다. 그리고 당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독에서 자신을 놓아주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래디컬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첨단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가주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수소 보틀(1병) 구입시
Enesti UV CUT SUN BLOCK
에네스티 유브이 컷 썬블럭 1개
(8불 상당 사은품)
공짜



수소수 무료 시음!
깨끗하고 건강한 물 드시러 오세요.
한국의 코리아홈 PLUS 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CTP 100
$1,3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GSPH 100
$2,9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수소수기

■ 환원력이 뛰어난 수소가 생성되는 보틀

[제품특징]
*스테인레스 필터를 통해 잎차, 티백, 천연차 등 다양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적정사용온도 : 친환경소재와 제품 변형 방지를 위해 -20도~100도 사이에서 사용을 권합니다.
*심플한 디자인, 친환경 트라이탄 소재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휴대성으로 여행, 스포츠, 레저 등은 물론 일상에서도 편리합니다.

1병 ~~$95.00~~ $65.00 +TAX

에뜨레벨
être belle
Made In Germany

| 피부 회복력 강화 시스템 |

24캐럿 골드와 꿀의 환상 조합!

피부 세포 재생 솔루션

G/O/L/D/E/N/S/K/I/N

클렌징부터 마무리 크림까지 느낄 수 있는 24캐럿 골드 트리트먼트

1) 눈가 쿨링 효과와 풍부한 영양공급으로 뛰어난 퍼밍 효과로 건강한 눈매로!
2) 자외선이 강한 오전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 탄력을 향상!
3) 밤 사이 충분한 피부 휴식과 영양을 채워주어 피부 컨디션을 회복!



■ 골든 스킨 케어 세트
Golden Skin Care Set

골든 스킨 아이 젤 15ml
골든 스킨 데이 크림 50ml
골든 스킨 나이트 크림 50ml
3종 세트 $256+tax

Biocüra
바이오큐어는 독일최대규모 코스메틱 막심과 엠에스코의 라인업 확장으로 의료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특허기술을 보유하여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이오큐어의 제조에 기술제휴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 놀라운 효과를 한알에 담다 |

■ 바이오큐어 트리트먼트 캡슐
TREATMENT CAPSULE

한알의 파워! 블랙캡슐
독일 제약회사의 기술력 바이오큐어

TREATMENT CAPSULE 50ml
$49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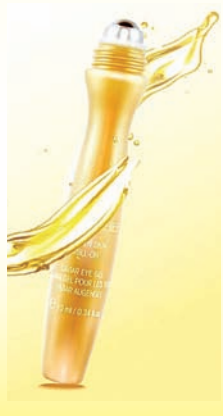


미백효과
탄력개선
주름개선
항산화
안티에이징
혈색개선

| 금빛으로 빛나는 골드 캡슐 |

■ 바이오큐어 콘센트레 퓨어세럼
CONCENTRATE PURE SERUM





■ 골든 스킨 아이 롤-온
Golden Skin Eye Roll-on

휴대가 간편한 젤 타입의 아이 롤-온
탄력
피부결
수분공급
눈가 생기

Golden Skin Eye Roll-on 10ml
$34 +tax

■ 선 크림 + 애프터 선 로션
Sun Cream + After Sun Lotion

Sun Cream + After Sun Lotion 75ml+75ml
$44 +tax



선크림과 애프터 선 로션 패지키 상품으로 선블럭을 차단해주며 햇빛으로 인해 자극 받은 피부 진정까지 한번에 가능한 제품.

구입 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

밥에 담긴 따뜻한 위로… '밥퍼' 1천만 그릇 돌파

29년 간 나눈 사랑의 결실, 원스톱 복지서비스 프로젝트도 시작

다일공동체가 밥퍼나눔 1천만 그릇 돌파를 기념하는 오병이어 행사를 2일 오전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진행했다. 1988년 11월 11일 밥의 나눔, 일명 '밥퍼'를 시작한 다일공동체는 2006년 3백만 그릇, 2011년 5백만 그릇, 2014년 7백만 그릇의 밥을 나눈 데 이어 이날 마침내 1천만 그릇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눴다.

행사는 다일공동체 이사장 최일도 목사의 사회로 총 1천5백여 명의 다일공동체 관계자 및 내빈, 소외된 이웃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요 내빈으로는 동대문구 민병두 국회의원, 김종욱 서울시정무부시장, 동대문구청 유덕열 구청장, 전 월드비전 회장 박종삼 목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신종호 이사장, 배우 김보성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밥퍼를 통해 삶이 변화된 무의탁노인, 노숙자들의 소감 발표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일공동체가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원스탑 복지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및 대형비빔밥 나누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최일도 목사는 행사 시작에 앞서 "29년이 흘러 1천만 그릇을 돌파할 수 있었던 데는 수많은 자원봉사자 있었기 때문"이라며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일해준 얼굴 없는 수많은 자원봉사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소감발표는 수혜자에서 현재 밥퍼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인 이차술 할아버지와 밥퍼 이용자 김태석 할아버지가 맡았다. 이차술 할아버지는 "노숙생활 당시, 밥퍼에서 단순히 밥이 아닌 밥에 담긴 따뜻한 위로를 함께 맛보았다"며 "내 삶을 변화시켰던 밥퍼가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행사 말미, 최일도 목사는 밥뿐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이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해 운영하고자 하는 '원스톱 복지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밥퍼의 기적이 다시 한 번 이어져 이번 프로젝트 또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밥퍼 1천만 그릇 돌파를 기념하는 대형비빔밥 ⓒ다일공동체

한편 축하공연으로는 행사를 공동주관하는 한중일 올림픽 청년응원단, 레드엔젤과 장애를 극복하고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통해 음지에 희망을 전하고 있는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이 무대에 올라 행사를 더욱 빛냈다.

다일공동체는 현재 전 세계 10개국 17개 분원에서 밥퍼(급식지원), 꿈퍼(교육사업), 헬퍼(의료사업) 등의 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최초의 전액 무료병원인 다일천사병원을 2002년 설립해 무상진료 및 무상수술을 하고 있으며, 노숙인 요양시설인 다일작은천국도 운영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시진핑 주석 '한국이 중국 일부' 발언은 시대착오"

샬롬나비, 논평 통해 비판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6~7일 열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1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중국 정부는 동북공정을 비롯한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며 "시진핑의 발언은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던 중국의 동북공정 사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우리 민족과 역사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중국은 자꾸 왜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계속 주장하는 것일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역사적으로 천하사상에 입각한 중국인의 왜곡된 역사인식 때문"이라며 "고대 중국인들은 중화주의에 입각한 천하사상(天下思想)에 따라 세계관을 형성하여 주변지역은 동·서·남·북의 사방 모두를 야만인들로 인식하고 오랑캐라는 의미의 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이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서 한국은 동이로서 '활을 잘 쏘는 오랑캐'라는 경멸과 질시의 관념이 포함되었다"고 했다.


김영한 박사

이들은 "역사적으로 한국이 독립국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의 지도자들이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안보 논리 때문"이라며 "특히 38°선 이북의 북한은 중국의 중공업지역인 동북지구(만주)의 안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완충지구로 생각되어져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이 존재하는 한 중국의 역사 왜곡은 계속될 것이 자명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공개된 시진핑의 '한국은 중국의 일부' 발언은 오늘날 한국을 대하는 중국 지도자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강대국에 의한 한반도 분할책동이다.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치던 3.1운동의 정신이 다시금 그리워진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일치단결하여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여 평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한국이 영성대국이 되어 복음전파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며 "힘의 논리에 기초한 국제질서 하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온 국민이 힘써 기도해야 하겠다. 우리들은 세계 4대 열강이 각축하는 한반도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한국이 희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화의 복음을 전하여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한국민족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서 소중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칼빈 구원론의 핵심은 "칭의-성화의 동시성"

제5차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 신학포럼이 ACTS 부설 신학연구소 주최, "ACTS 신학공관과 역사신학"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24일 개최됐다.

ACTS 신학포럼은 '신학공관 운동'의 일환이며, 대학원 원우들을 대상으로 교수와 학생이 함께 연구해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 세미나다. 매 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열린다.

올해는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역사신학 분과에서 발표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간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ACTS가 펼치고 있는 신학공관 운동은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의 모든 분야에서 복음신앙을 통한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공관'하려는 운동이다. 학제 간 통합 연구의 성격을 띨 뿐만 아니라 복음에 방점을 둔 학문연구를 촉진한다는 데 큰 의미를 지니는 신학-신앙 운동이다.

제4대 연구소장 한상화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선 박응규 교수(역사신학)가 'ACTS 신학공관과 교회사 연구 및 해석,' 조권수 목사가 'ACTS 신학공관과 루터의 인간론과의 연관성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논평은 원종천 교수(역사신학)가 맡았다.

박응규 교수는 ACTS 신학공관의 기초가 되는 칼빈의 구원론의 핵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오는 이중 은혜임을 강조하며 이것은 곧 칭의와 성화의 동시성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상이 청교도들의 '가시적 교회'(visible saints) 개념으로 이어진 것을 자세히 분석했다.

조권수 목사는 ACTS 신학공관이 루터의 인간론과 연속성이 있다는 논지를 가지고, 그 연관성을 루터의 노예의지론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인간의 전적타락에 근거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강조가 ACTS 신학공관에도 또한 강조되고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ACTS 신학공관 운동은 이러한 구원론에 대한 강조를 가지고 실제적인 기도 운동을 통한 신앙 운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상기시켰다.

김진영 기자

목회가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기독일보 주최로 김상덕 목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목회 성경에서 그 길을 찾다" 모임에 남가주 목회자들을 초대합니다.

"목회를 하며 힘들고 낙심 되는 일들이 얼마나 나를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김상덕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목회를 배우며 '행복한 목회'를 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행복하니 가정이 행복해지고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목회가 이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신 귀한 모임에 목회자분들을 초청합니다. – 한인소망교회 윤 목 목사


강사: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개척 및 35년 목회

- **일시** : 5월 18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기독일보(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 **회비** : 없음
- **문의** : (310)715-9902, (213)434-1170

*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미리 예약해 주세요.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맨 오른쪽이 조종남 박사.

평창동계올림픽 선교와 평화에 기여하는 계기

올림픽 선교를 위한 콜로키엄 세미나 열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선교를 위한 콜로키엄 세미나가 4월 28일 오후 종교감리교회에서 개최됐다.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동계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평창올림픽을 통한 선교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 선교의 신학적 근거'를 주제로 발표한 조종남 박사(전 1988 서울올림픽스포츠선교회 대표)는 "어떤 이들은 스포츠를 전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며 "하지만 스포츠를 전도의 관점으로 보는 통찰력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스포츠 선교를 효과적인 전도의 모델로 발전시키는 동기를 부여했다"고 했다.

조 박사는 스포츠 사역의 신학적 근거로 "성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스포츠를 예로 들었다"며 "스포츠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될 때 오늘날의 전도와 관련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포츠는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초월하고, 때로는 국가 간에 존재하는 간극을 해소한다"며 "사람 낚는 어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한다. 스포츠 이벤트가 있는 장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전도사역이 이뤄져야 하는 신학적 근거가 된다"고 했다.

더불어 조 박사는 스포츠를 통한 복음전도의 장점에 대해 "경쟁력 있는 선수들을 복음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한다"며 "이들의 간증이, 미전도종족들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관심을 갖게 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스포츠선교회는 한체대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으며, 할렐루야 축구팀도 규칙적으로 바이블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며 "스포츠 선수들을 양육하는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곧 탁월한 복음전도자 혹은 양육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임마누엘축구팀과 할렐루야축구팀, 세계태권도선교회는 국내와 일본, 필리핀 등 해외로 다니며 관중들을 매료시켰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다"고 했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 선교를 위한 세계선교 동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조용중 목사(KWMA 사무총장)는 "강원도는 복음화율이 5.8%로 전국 최하위에 이른다"며 "특히 평창과 강릉은 각종 이단들이 올림픽 파크 인근에 수천평의 건물을 짓고, 그들의 올림픽으로 만들고자 매년 수십억을 쏟아붓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영 기자


양측 대표단의 협약서 교환 모습 ⓒ협의회 제공

한국-이스라엘 정 · 교계 지도자 상호 평화포럼 창설 협약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 정·교계 지도자들이 평화포럼 창설에 합의하고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4일 오후 강남 노보텔에서 한국 측은 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공동대표 황우여 전 부총리, 김영진 전 장관, 이스라엘 측은 세계유대인협의회 대표의장 엘리에제 무디센디에고(전 과학기술부 장관, 국회의원)와 죠시 라인스탄 KCAC 대표(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인 50인 선정)가 참석해 '한-이 정·교계 지도자 평화포럼 창설'에 합의했다.

이날 출범한 평화포럼은 양국 전·현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대사를 역임한 정계 인사와 교계·학계·경제계 지도자들로 구성된다. 이날 합의 서명한 협약에 따르면, ①지구촌 평화와 정의 실천 ②양국 발전과 우호 증진에 기여하는 공동사업 전개 ③양국 청년·대학생들 교류협력 증진 사업 ④양국의 정·교계, 학계, 경제계 인사들의 상호 방문과 공동관심 사항에 대한 국제포럼의 정례화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이번 양국 정·교계 지도자들의 만남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와 한-이스라엘 성경연구소 송만석 대표, 이스라엘신학포럼 회장 김진섭 백석대 부총장, 미래농업개발연구소 정호진 대표 등이 큰 몫을 감당했다.

김영진 전 장관은 "한국과 이스라엘은 지구촌의 평화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안정과 지구촌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인 23일,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W-KICA) 상임대표인 김영진 장로는 이스라엘 정부에서 두 차례 장관을 역임하고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엘리에제 무디센디에고 회장과 죠시 라인스탄 대표 등을 국회로 초청해 대화한 후 협약 체결을 제안했고, 방문단은 이날 오후 회의를 거쳐 이에 동의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축복의 땅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정·교계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평화포럼이 창립된 것은 매우 뜻깊은 출발이며, 앞으로 적극 동참하며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협약식에는 한-이스라엘 국회의원 친선협회 대표로 활동했던 조배숙 의원과 이용경 전 의원(CGNTV 대표), 김진섭 목사(백석대 부총장) 등 각계 지도자들이 함께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주한 하임 호센 주이스라엘 대사는 "지구촌에 평화가 절실한 이때, 한국-이스라엘 정·교계 지도자들이 평화포럼 창설을 위한 협약 체결을 한 것은 매우 뜻깊은 출발"이라며 "대사로서 적극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한국학교 토 오전10:00 ~오후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오병이어 화 오전11:00 ~오후6:0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A,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주일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 오전5:30(월-금)
주일 2부 오전 11:00 새언약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30
수요큐티모임 : 저녁 7:0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영어예배 오후 1:00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영어예배 오전 10: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주일성경공부 오전 10:00 / 주일성경공부 오후 12:45
영아,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4
T. (951) 696-1034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45 /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15 / 3부예배 오전 11:45 /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45 /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 금요예배 오후 7:30 / 매일QT 월~금 오전 6:00 /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10:00 /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 수요예배 오후 7:30 /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가디나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30 / 3부 EWS 예배 오후 2:00 /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 금요기도회 오후 7:00 /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EM 1부 9:30/ 2부 11:00 / 중/고예배 오전 11:00 /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1:30 /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 주일2부 오후 12:45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1부 오전 8:00 / 2부 오전 10:30 / EM예배 오후 12:30 /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 한어청년 오후 12: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 오전 11:00 / 유년부 오전 11:00 /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 Awana 오후 8:00(금) /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 2부 오전 9:30 / 주일 3부 오전 11:30 /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 영어예배 오전 10:00 /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조셉 붓소 초청 찬양집회가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에서 열렸다.

"하나님은 그 어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기 원하신다"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40주년 기념 '조셉 붓소(Joseph Butso, 한국명 최준섭) 초청 찬양집회'가 지난 26일(수) 열렸다.

케이블TV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3' 우승자가 되면서 세간에 화제가 된 조셉은 '찬양' 버스킹(길거리공연)과 CCM밴드 '연탄365' 멤버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실력파 CCM 가수로 흑인 특유의 감성과 창법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조셉은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태어나 조지아 주에서 자랐으며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한국어를 전공했다. 졸업 후 한국으로 가게 되면서 찬양 버스킹으로 신촌-이태원-홍대 거리를 누비며 찬양을 전해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화제를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조셉 붓소를 보기 위해 많은 청년들과 연합교회 교인 등 700여 명이 성전을 가득 메웠다.

집회 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조근상 목사는 "1년 전 한국에서 유창한 한국말로 뜨겁게 찬양하는 조셉 형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시간 조셉을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전했다.

이어 편안한 복장으로 강단에 선 조셉은 "한국에 살았을 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고 싶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가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춤추며 찬양할 때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치며 함께 찬양했다. 또 그는 "만족하지 못한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왔다. 이제는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며 한국에서 찾은 삶의 목적 등을 찬양과 함께 나눴다.

또 그는 "교회에서는 찬양이 쉽지만, 사실 거리에서 찬양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교회, 거리, 식당, 그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기 원한다"며 '부르신 곳에서'를 찬양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연합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앞으로 교회는 40주년 기념 좌담회 및 음악회, 기념책자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윤수영 기자



2017 AKRCA 뉴욕교협 연합부흥성회가 28일 신광교회에서 개최됐다.

AKRCA 뉴욕교협 연합부흥성회 "다시 참 개혁교회로"

RCA(미국개혁장로교) 소속 한인교회들의 연합체인 AKRCA 뉴욕교협(회장 류승례 목사)이 '2017 연합부흥성회'를 28일 오후8시 신광교회(담임 강주호 목사)에서 개최했다.

'다시 참 개혁교회로'(갈3:26-29)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합부흥성회는 강사로 예장대신 증경총회장이자 캄보디아 장로교신학대학교 총장인 김재규 목사가 초청된 가운데 진행됐다. 뉴욕 AKRCA는 매년 춘계 연합부흥성회와 목회자세미나를 통해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첫날 연합부흥성회는 류승례 목사의 사회로 선한목자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박희준 권사(충신교회) 기도, 김근옥 장로(신광교회) 성경봉독, 신광교회 찬양대 찬양, 김재규 목사 말씀, 이종국 장로(실로암교회) 헌금기도, 한문섭 집사(선한목자교회) 헌금특송, 신성능 목사(빌립보교회)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재규 목사는 '참 교회상'(창12:1-9)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교회를 이루는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라면서 "창조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포함된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하고 이런 성도들이 교회를 이룰 때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를 통해 미리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재규 목사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실패가 없다"면서 "성령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돼 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의 첫째 지표였는데 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 곧 말씀을 붙들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비전은 무엇인가를 주목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전했다.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주최 농구대회

15개 교회 17개 팀 참여해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Asian Youth Center of NY)가 주최하는 제8회 청소년농구대회가 15개 지역 교회에서 17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다.

청소년센터는 하루에 모든 일정을 소화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4월 22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홀리 코우 플레이 그라운드'에서 농구대회를 진행했으며, 대회에는 농구팀원 외에 부모들과 각 교회 중고등부 학생 등 370여 명이 농구경기를 지켜 보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경기 결과 중등부 우승은 한인동산장로교회팀이 차지했으며 고등부 우승팀은 뉴욕장로교회, 준우승은 프라미스교회다. 본경기 외 특별 이벤트로 진행된 3점 슛 콘테스트 우승은 뉴욕장로교회 이여호수아 학생이 수상했다.

미국의 '일요일 오전 11시 예배' 전통 흔들리나?

시간대 옮기거나 아예 수요일에 주일예배

미국에서 '일요일 오전 11시 예배'의 전통이 흔들리고 있다. 일요일 대신 아예 수요일에 '주일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일부 교회들이 주일예배 시간대를 변경하고 있으며, 미네소타에 소재한 교회들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수요일에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프웨이리처시 소장인 톰 레이너(Thom Rainer) 박사는 "많은 교회들이 이미 일요일 오전 11시 예배의 전통을 내려놓고 있다. 오전 11시 예배가 더 이상 교인들의 필요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교회의 경우, 더 많은 교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주일예배 시간대를 변경했다. 기존의 오전 11시 예배가 '교통, 유동성, 예배의 길이'에 있어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요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도 "오전 11시 예배는 너무 늦다. 대부분 사람들이 더 일찍 깨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배 시간이 곧바로 점심시간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레이너 박사는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오전 9시와 10시 30분 사이에 시작하는 예배를 선호한다"면서 "밀레니얼 세대들은 특별히 오전 11시 예배를 배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11시 예배가 너무 오래됐고, 시대에 동떨어져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시간대만 문제되고 있는 건 아니다. 미네소타의 경우, 아이들의 운동 스케줄이나 주말 활동 및 장거리 여행 때문에 일요일 예배를 포기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네소타의 주류 교단들은 오래 전부터 주일예배를 수요일에 드리고 있다.

미네소타 플리머스에 위치한 마운트 올리벳 루터교회의 피트 에릭슨 목사는 "우리 교회의 주일(일요일) 오전 예배에는 주로 젊은 가정들이 참석한다. 자녀들이 미취학 아동부터 4학년까지인 경우가 많다. 수요예배 때는 자녀들이 성장한 가정들이 주로 온다"고 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오던 하나의 관행이었다. 안식일 후 첫째 날 주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렸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모이다가 점차 안식일에서 이날, 주일예배가 정착되어 간 것이다.

신약 성경 중 가장 늦게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사도 요한이 밧모 섬에서 받은 계시를 기록하며 '주의 날'(Lord's Day)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하트포드종교연구소의 스캇 툼마 소장은 "수요자 중심의 문화가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일요일) 예배에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교인들이 결국 예배에 안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예배 참석률을 높이고자 수요일에 주일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요일 대신 수요일에 주일예배를 드려도 괜찮은지 의구심을 가지는 이들도 있다.

강혜진 기자

마약거래상, 예수 영접 후 목회자로

헌신된 기독교 신자였던 아내 덕분

멕시코 반군 출신의 마약거래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담대한 기독교 목회자가 되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오픈도어즈를 인용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레오나르도 아귈라는 한 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반군지도자이자 악명 높은 마약거래상이었으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

아귈라는 1967년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틀라텔롤코 충돌 이후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반군에 들어간 그는 테러단체에 속하게 됐고, 마약을 거래했다.

마약 소지범으로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까지 그는 조직적인 범죄의 세계에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헌신된 가톨릭 신자인 리디아를 아내로 만났다. 그녀는 그의 석방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는 결국 교도소에서 나오게 됐다.

아귈라는 그러나 석방될 때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가 원한 것은 돈을 비롯해 빼앗겼던 자신의 소유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했다. 결국 그녀의 기도가 다시 한 번 응답되어 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아귈라는 현재 센트로파밀리아 아포센토알코라는 개신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근처에 위치한 이 교회는 멕시코의 다른 교회들과 같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범죄 조직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들에게 친밀하게 대하거나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멕시코의 다른 교회들은 이같은 마약 카르텔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는 오픈도어즈와의 인터뷰에서 "교인들을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치는 목회자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멕시코에서 이들에게 위험한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 마약 카르텔은 이미 일부 목회자들을 납치·살해했다"고 전했다.

오프도어즈가 매년 발표하는 박해국가지수에서 멕시코는 41위를 기록하고 있다. 멕시코에는 1억 2천만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며 모두 범죄 조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부족 공동체의 일원이 예수를 영접할 경우, 가족 및 부족 공동체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강혜진 기자

美 기독교인, 성경 좋아하지만…

미국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성경을 자주 읽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웨이연구소는 지난해 9월부터 약 1달간 1,000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대한 생각과 그것을 읽는 실태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은 성경이 도덕적으로 선한 자산이 된다고 밝혔으며, 성경은 진리라고 응답한 이들은 36%, 삶을 바꾼다고 말한 이들은 35%, 오늘을 살아가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말한 이들은 37%였다.

이를 반영하듯 약 90% 이상의 미국인들은 가정에 성경을 갖고 있었으며,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수는 평균 3권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성경이 고리타분하다고 말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14%, 편협하다고 말한 이들은 8%, 해롭다고 말한 이들은 7%에 불과했다.

반면, 지금까지 최소한 성경을 한 번 통독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0%, 성경을 조금 읽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43%, 성경을 전혀 읽어본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0%였다. 즉 절반 이상은 성경을 조금 읽은 셈이다.

또 최소한 한달에 한 번은 교회에 나간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매일 성경을 읽는 이들은 39%였다.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매일 성경을 읽는 이들은 49%였다. 성경을 자주 읽는 이들이 많지 않은 이유로는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27%) △삶이 너무 바빠서(27%) 등으로 나타났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금요찬양예배 7:30 PM
주일학교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토요일 6:30 A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기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8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삼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www.sellacare.com SEARCH

Congratulations!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샵 입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샵 입점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 심장, 뇌 혈전 용해 | 뼈, 골수 영양 공급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세트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품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싶다면 혈액순환, 혈관건강부터 지켜야…

- **혈 관 성** 치매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 섭취하여 혈관성 치매 예방
- **뇌 졸 증** 기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하고 섭취함으로써 뇌출혈 예방
- **동맥경화** 평소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복용하여 신체의 혈관청소에 도움 줘야
- **고지혈증** 음주를 자제하고 수영, 등산 등 운동과 함께 혈액혈관 영양제 복용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있는 좋은 영양제

☑ *100% Organic* (유기농)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All Natural* (순수천연)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5 소비자의 재구매 확률이 높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셀라케어 제품은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의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현대약국 (웨스턴+5가)	213.480.3322	세리토스 파이오니아약국	562.402.6972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다운타운 산페드로	213.765.9677	LA시온마켓 엄마손약국	213.739.303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얼바인	949.330.9009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국제건강가족동호회	213.382.9714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텍사스 (Nature's Gift)	972.280.9006
시온약국	213.344.973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웍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발보아 약국	818.831.2090	로랜하이츠	626.912.5727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그린랜드 건강헬스(그린마켓 내)	626.839.2868	하와이 (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캐나다	604.872.166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든그로브 만미당옆	714.333.7866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가든그로브 한성한의원	714.638.5100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세리토스 패밀리약국	562.402.0500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한국총판 010.6503.0191
서울혜화동 서울대병원 본원내 02.2072.1579 / 암센터내 02.2072.7565
서울고대 안암병원내 2층 02.928.9580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내 031.719.9589





티베리아스 시내 모습과 미그달 지역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31)

티베리아스와 미그달, 겟네사렛 지역

티베리아스 도시의 역사

티베리아스는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의 갈릴리 바다 서안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다. 그 이름은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Tiberius Julius Caesar Augustus, BC42년 11월 16일~37년 3월 16일)에서 따 왔다.

티베리아스는 주전 20년 헤롯 대왕 1세(헤롯은 로마 제국 시대에 유대 지방에 분봉된 왕으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왕이다. 예루살렘 성전과 헤로디움, 가이샤라 총독부 등을 건축한 왕이다.)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새로이 건설하여 그의 갈릴리 왕국의 수도로 삼았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이 도시가 무덤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거주하길 거부했으나 헤롯 안티파스가 강제로 이주시켜 살게 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수도인 세포리스에서 새로운 수도로 티베리아스를 AD35년경 건설했다. 그는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우스의 이름을 칭송하기 위해 정치적 계산하에 이 도시 이름을 지은 것이다.

예루살렘이 AD70년 파괴되면서 경건한 종교적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이었던 이곳으로 몰려왔고, 역대 유명한 랍비들의 활동 무대가 되기도 하였다. 제2차 유대 항쟁 바르코크바의 반란(132-135년) 때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이 도시를 이방인의 중심지로 만들었지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하자 이곳으로 이주하였고, 세포리에 있던 여러 유대인들도 제도와 기관들을 옮겨와 유대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를 만들었다. 그 후 이곳은 예루살렘, 헤브론, 쯔파트에 이어 유대교의 4대 성지가 되었다.

랍비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일 때 이곳에서 AD200년 구약성경을 해석한 책 미쉬나가 만들어졌고, AD500년 미쉬나를 보다 더 정밀하게 해석한 책인 탈무드가 이곳에서 편찬되기도 하였다. 8-9세기에는 히브리어 구약성경에 모음 부호 첨가 작업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후 비잔티움 제국과 이슬람의 지배를 받는 중세 동안 전쟁과 지진으로 버려졌다가 십자군 원정 때 다시 예루살렘 왕국에서 갈릴리 지방의 중심도시가 되었다. 살라딘 이후 십자군이 떠나자 다시 버려졌는데 이후 수세기 동안 버려졌다가 다시 유대인이 몰려들어 사는 등 흥망을 반복했다.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18세기와 19세기 들어 많은 유대인 랍비들이 몰려들어 티베리아스는 다시 유대교육의 중심지가 되었다.

성경과 티베리아스

구약에서는 티베리아스가 언급되지 않는다. 이 도시가 신약시대에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갈릴리 바다 16개 포구가 있었고 그중에 하나인 작은 포구였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티베리아스가 언급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기록하고 있다. 본문대로 하자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 해안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하셨지만 당시의 가장 큰 도시였던 신흥 도시 디베랴에서도 일을 보시고 머무셨음을 알 수 가 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랴 바닷가에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되어졌다. 이것을 볼 때 갈릴리 바다는 주님 시대에 디베랴 바다라 불리우기도 하였던 것 같다.

티베리아스의 오늘

지금은 헤롯 당시의 흔적은 거의 없고 도시 입구에 18세기에 지어진 성벽의 모습이 일부 남아있다. 이방의 갈릴리 한 도시로 배척의 대상이었던 이곳이 유대인들에게 각광을 받는 곳이 된 것은 여간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활동하셨던 주 무대에 유대교에 이어 이슬람교가 지나가면서 지금은 세속화된 현대도시가 되었다.

남쪽으로 온천지대가 있었으며(이 온천은 온도가 140도 정도 되는데 1세기에도 사용되었다.) 지금도 온천 수영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다. 필자는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한 1993년 2월 성지 순례 중에 이 온천 수영장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노천 온천에 몸을 담그고 바라보았던 별들은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난다.

티베리아스는 현대도시로서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로 성장했다. 약 1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도시는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한 관광 산업이 활발하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휴가철에 갈 수 있는 두 곳(홍해와 갈릴리 바다) 중 하나로서 호텔업이 발달하였다. 주변에는 동편으로 골란고원을 비롯하여 많은 배후 도시들과 키부츠 마을들이 있다. 숨겨진 마을들 중에는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마을도 많이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다.

필자는 2018년에 갈릴리에서 다시 선교 사역을 시작해 볼까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조만간에 티베리아스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어 갈릴리 바다에서 춤추며 유행가를 부르는 젊은이들이 변화되고 말씀의 은혜에 젖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단기선교팀이 오면 티베리아스 시내와 바닷가에서 찬양 전도하는 일을 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본다. 16년 전에 영국에서 단기팀이 와서 시내 전도 찬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거리에서 공연하는 예술가들인 줄 착각하고 동전을 던지는 바람에 한바탕 웃음을 지은 적도 있다. 대구 화원교회 단기팀이 왔을 때는 두 자매가 드레스를 입고 워십 댄싱을 하였고 우리는 찬양을 하였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다.



겟네사렛 지역

미그달과 겟네사렛

미그달(Migdal)은 티베리아스에서 북쪽으로 해변 길을 가다가 만나는 키부츠 마을이다. 호수가에 조그만 교회 탑이 보이는데 이곳은 막달라 마리아의 출생지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현대 미그달은 농촌도시로서 유실수를 재배하는 아름다운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인근 겟네사렛(Ginosar)에서는 1986년 갈릴리 가뭄 때 발견된 길이 8m 폭 2.5m의 예수님 당시의 목선을 관람할 수 있다.

그외 티베리아스 주변 지역으로 미그달과 마주 보는 곳에 있는 아르벨 산을 들 수 있겠다. 이 산에서는 로마에 대항한 1차 반란 시 유대 군인들이 굴 속에 숨어 항전한 적이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바구니를 달아내려 반란군을 잡아 죽었다는 내용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나타나고 있다. 산 정상 부근에는 커다란 저수지가 있고 서편 절벽에는 곳곳마다 동굴들이 뚫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보는 갈릴리 바다의 아침이 너무나 아름답다. 우기가 되면 티베리아스 남쪽 들에 핀 빨간 백합화가 너무나 아름답다. 사람은 가고 없지만 백합화는 창조 후 지금까지 여전히 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말없이 전달해 주고 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마6:28-29)

〈계속〉

2017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2017 CD PRINTING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패키지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160 (디자인 포함)
A형 스탠드배너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9가 로데오 갤러리아몰
OPERA HOUSE
Bakery
교회 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환영
T. (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Suite # 38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라미라다 가든 꽃집
La Mirada Garden Florist
Flowers For All Occasions
Serving OC and LA Counties since 1969
라미라다 가든 꽃집은 35년 넘는 경험, 노하우,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감각의 꽃으로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꽃집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그리고 모든 이벤트를 아름다운 꽃과 서양란, 각종 화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배달 해 드립니다.
www.lamiradagarden.com
lamiradaflorist@gmail.com
Tel. 714) 521-0901, 800) 645-1114
14794 Beach Blvd., City of La Mirada, CA 90638

● 이장렬 교수의 〈회복의 복음〉 칼럼

호 퀴리오스 에스틴! 주님이시다!



이 장 렬 교수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신약학

디베랴 해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제자들은 밤새 허탕만 치던 중 예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인 포획을 경험한다. 이 일을 통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이를 일러준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삽시간에 겉옷을 두른 후 물속으로 몸을 던진다. 뭍으로 올라가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미리 차려 놓으셨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듭 대면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자리잡는다. 주님은 우리가 의심 많은 존재임을 아신다. 그래서 거듭 우리를 설득하시고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요한의 보고에 따르면, 부활 예수는 제자들을 세 번 찾아와 주셨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처음 찾아주셨을 때는(요20:19-23 참조) 자신들 눈앞에 서 있는 존재가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혹은 그 존재가 단순히 천사나 영이 아닌지 조금 의심했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거듭된 방문을 통해 스승의 부활을 분명 확신하게 된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근데 누구시죠?"라는 질문 따위는 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 같으신데 정말 부활하신 것 맞으시나요? 혹시 예수님의 영이나 천사는 아닌가요?"라고 물으며 확인작업을 벌이지도 않는다(눅24:37 참조). 제자들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들과 함께 계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확실히 깨달았다.

"제자들이 주신 줄(호 퀴리오스 에스틴)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21:12)"

요한복음 21:12에서 "주신 줄"이라고 하는 부분은 헬라어로 '호 퀴리오스 에스틴'이다. 그런데 이 헬라어 표현은 사실 21장 앞부분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21장 7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시라"라고 말할 때, "주시라" 역시 헬라어로 '호 퀴리오스 에스틴'이다. 또한, 같은 절에서 베드로가 "주라" 하는 요한의 말을 들었다고 묘사할 때, 거기 "주라"는 표현 역시 헬라어로 '호 퀴리오스 에스틴'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호 퀴리오스 에스틴)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호 퀴리오스 에스틴) 하는 말을 듣고(21:7)"

이처럼 저자 요한은 21:7과 21:12에서 "주시라(호 퀴리오스 에스틴)"을 세 차례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디베랴 바다에서 밤샘 노동을 하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포획의 기적을 선사하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적 식사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확실히 증거한다. 21:1-14의 짧은 구절에서 "주님이시다(호 퀴리오스 에스틴)!"는 선언을 거듭 반복함으로써 저자 요한은 예수 부활의 확실성을 강력히 선포한다.

21장 7절과 12절에 거듭 등장하는 "주시라(호 퀴리오스 에스틴)"와 구조적으로 동일한 표현이 사실 앞에서 한 차례 사용되었는데, 21장 4절의 "예수신 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헬라어로는 '이에이수스 에스틴'이다. 이 헬라어 표현 '이에이수스 에스틴'과 앞서 여러 번 언급된 '호 퀴리오스 에스틴' 사이에는 단 한 가지 차이가 존재하는데, 바로 4절에서는 '호 퀴리오스'(주[the Lord]) 대신 고유명사 '이에이수스'(예수[Jesus])가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제자들이 예수신 줄(이에이수스 에스틴) 알지 못하는지라(21:4)"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호 퀴리오스 에스틴)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호 퀴리오스 에스틴) 하는 말을 듣고(21:7)"

"제자들이 주신 줄(호 퀴리오스 에스틴) 아는 고로(21:12)"

그러니까, 저자 요한은 "예수"와 "주"를 서로 상호교환 가능한 단어로 사용한다! 이를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갈릴리 랍비 예수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서로 같은 분이심을 확인해 준다.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그들 눈앞에서 표적을 행하셨으며, 그들과 함께 묵으셨던 예수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한 분임을 증거한다. 제자들과 함께 팔레스타인의 땅을 밟고 걸으시던 그 예수가 바로 의심 많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부활의 메시야다(요20:28).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 다섯과 떡 두 개로 오천 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베푸신 영광의 주님이시다. 로마의 사형틀에서 돌아가셨던 선생님이 바로 다시 살아나사 제자들을 거듭 만나주시는 영광의 주시다.

'호 퀴리오스 에스틴'(주시다)은 요한이 전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요한복음 1-19장은 그저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기껏해야 최면적 명상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분명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사셔서 낙심한 제자들을 다시 그리고 또다시 찾아와 주셨다(요20:19-23; 20:24-29; 21:1-14).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 부활하신 후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함께해 주셨던 주님은 쉽사리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와 같이해 주신다.

'호 퀴리오스 에스틴'은 요한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다. "주님이시다!"라는 외침은 요한의 기쁜 소식일 뿐 아니라, 우리의 기쁜 소식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호 퀴리오스 에스틴)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호 퀴리오스 에스틴)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21:7)"

호 퀴리오스 에스틴! 〈계속〉

● 제이슨 송 칼럼

실패를 딛고 전진하기(4)



제 이 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이번에는 실패와 성공이 왜 같은 동전의 양면인지에 대해 나눠 보겠습니다.

야구를 통해 예를 들어보죠. 아무리 안타와 홈런을 잘 치는 타자라 해도 타율은 3할 대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3할 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번 타석에 들어가 일곱번 아웃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키는 어떤가요? 역대 최고 선수였던 웨인 그렛츠기 선수의 통산 슈팅 퍼센티지는 5089번 샷을 쏴서 17%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시즌 최다 득점을 한 때에도 성공률이 24%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렛츠키가 한 명언이 기억납니다: "슈팅을 하지 않으면 골을 만들어낼 확률은 0%다."

75-83%는 실패할 것을 알고도 계속 슛을 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점수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구는 어떨까요? 지난 2-3년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판 커리 선수의 3점 슈팅이 각광을 받고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은퇴하고, 르브란 제임스 외에 어떤 스타가 등장할까 궁금해 하던 팬들은 커리의 지난 두 시즌 3점 슛과 기묘한 드리블링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럼 커리의 3점 슛 성공율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7년간 커리는 총 3571번 3점 슛을 쐈고, 그 중 44%, 1583번 슛을 넣었습니다. 이게 NBA 역사 최고의 성공율이라 하는데요, 아무리 3점 슛을 잘 넣는 커리도 54%, 즉 절반 이상의 경우 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실패와 성공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렇다면, 실패와 성공의 관계를 이해하고 전진하며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실패할 거야"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독침같은 말과 타인의 편견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고 더욱 인내하며 노력했습니다.

또, 이들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말과 의견을 더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조언과 가이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인터넷과 핸드폰 때문에 자신이 온 세상을 꽉 잡고 있는 듯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른이나 부모, 교사나 목회자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람들은 비판엔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조언에 귀를 쫑긋했고, 충고와 격려의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실패를 딛고 성공한다는 것은 잘못된 자아상, 그러니까 자신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과장하거나 부풀리거나, 허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극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전에 아주 재미있는 어린이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요, 공부를 싫어하고, 먹기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남자 아이가 항상 "나는 우주 비행사가 될거야"라 주문을 외우듯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자주 빠지고, 책도 읽지 않고, 그저 TV만 보는 뚱뚱한 아이가 어떻게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은 망상(delusion)이나 희망사항(wishful thinking)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부모나 교사는 절대 아이의 기를 살려준다는 이유로 허위적 칭찬을 해선 안됩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지침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매사에 비판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되, 격려와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 곁에 머물라.

둘째, 실패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셋째, 실패란 삶의 한 부분에 제한된 것임을 잊지 말라.

넷째, 현실적인 목표나 기대를 세우라.

다섯째, 약점을 고치려 하기보다 장점을 개발하라.

여섯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라.

일곱째, 낙심하지 말고 용수철같이, 오뚝이같이 다시 도전하라.

실패가 성공의 관계를 잘 이해해,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계속〉

농장, 기도원, 고급주택

* 71만불의 가치---- 단 41만불
* 고급주택 3Bedroom, 3 Bathroom
* 매달 3,000불의 매실 수익
* 우물 7만불의 가치 2개 있음
* 큰 도로 옆에 있어 편리함
* 유명한 구름이 머무는 곳 근처
* 제주도 날씨와 같아 한국에서 나는 과일,야채 100%재배 가능

연락처 : T.(213)298-8384 James Nam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os Angeles , CA 90019

미술 서양화 3개월 특수반

초보라도 3개월 연수하면
최소 100불 상당의 그림을
시장에 팔아도 잘 팔릴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수업시간 : 매주 2시간
수강료 : 매달 $200불
(재료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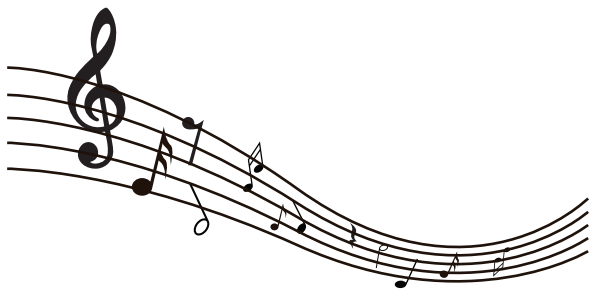


* 국제 상도 받은 40년의 경력
* www.amazon.com 에서 유일하게 판매되는 서양화가 James Nam Suk Hoon!!

남석훈 예술의 집
(기타, 피아노, 드럼 3개월 속성반 모집)

이봉조 악단에서부터 수 십년의
재즈 밴드로 활약하며 얻은
많은 경험의 노하우로
초보자도 3개월, 1주에 1시간 이면
복음성가, 찬송가의 훌륭한 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로택스 호텔 근처)

수강료 : 월 $120



평화통일 선교회

무력으로 통일을 하느냐
기독교 정신으로 평화 통일을 하느냐
평화통일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평신도의 간증이 있으시면
간증 부탁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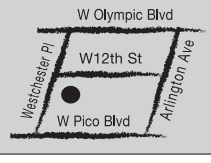
통일학 개론 강의(매주 OPEN)

강사 : 남석훈 피아니트 선교사

사역 : 상담학 박사 에스터 남 선교사

미주 통일 연구원 한민족 연합회
총재 : 남 석 훈

연락처 : T.(213)298-8384 James Nam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os Angeles, CA 90019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도서

희망 온 에어
최충희 | 홍성사 | 220쪽



미주 한 기독교 방송에서 2013년부터 4년간 시즌제로 방송된 칼럼의 일부를 엮었다. 라디오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먼저 접한 청취자들은 이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아 더 많은 이에게 퍼지기를 원했다고 한다. 책에 담긴 사연들이 많은 이의 마음을 울린 이유는,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이라는 땅을 꾹꾹 밟으며 담대히 걸어가라 격려하기 때문이다.

삼키는 칼 1, 2
이중세 | 마음지기 | 408 · 392쪽



성경과 고고학적 연구를 뼈대로 삼아, 허구를 살로 만든 소설 작품이다. '다윗'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골리앗, 기도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등을 소설 장르로 재조명하고 있다. 희곡 작가이며 탁월한 이야기꾼인 저자는 특유의 필력으로 이를 생동감 있게 담아냈다. 사울의 첩 리스바와 사울의 삼촌 이브넬의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기독교 문학과 행복한 글쓰기
김종회 | 바이북스 | 212쪽



기독교와 문학은 서로 배타적이라는 선입견을 갖기 쉽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종교와 허구를 다루는 문학은 근원부터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적 깊이와 문학적 완성도를 가진 문학 작품들도 적지 않은데, 기독교와 문학이 모두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15개 유명 작품을 분석하면서 신앙과 문학에 대한 모두의 눈을 뜨게 해 준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A. W. 토저 | 이용복 역 | 규장 | 240쪽



교회의 약점들을 지적하고 타협을 꾸짖으며, 경고하고 권면한다.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이다. 귀 기울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언제나 성실하신 하나님을 늘 보여주기 때문이다. 파도같이 밀려오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잠잠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라.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리는 저자의 24번째 시리즈.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새벽 은혜' 담아 펴낸 4권의 희망 메시지

순복음강남교회 최명우 목사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년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며 전한 설교를 한데 모아 해마다 한 권씩 '희망 메시지'라는 표제로 총 4권의 책으로 출간했다.

2013년 처음 출간된 그의 저서는 '축복으로 이끄는 로드맵', 두 번째 책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세 번째 책은 '새 창조의 축복', 최근에 출간한 책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영적 법칙(케리그마)'이다.

최명우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성장하고 사역하면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했다"며 "영적인 아버지이며 스승인 조용기 원로목사에게서 배운 신앙과 신학을 토대로 한 믿음의 원리로 지금껏 사역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한국전쟁 이후 절망에 빠진 성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듯 오늘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지내는 세대들을 향해 희망을 이야기 하고 싶었다"며 책을 출간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출간한 희망 메시지 제4권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영접 법칙'은 2013년 '열두광주리 신년특별새벽기도회'에서 전했던 설교 내용을 기초로 했다. 최 목사는 이 책에서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한 이 때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12편의 희망 메시지들을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영적 법칙
최명우 | 케리그마 | 231쪽

소개하고 있다.

"말씀을 통해 선한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영적 법칙을 적용한다면 많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서에서 저자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맡기라(시37:4-6) △선한 소원을 품으라(잠11:23) △주의 말씀을 들으라(시119:49-50) △하나님만 바라보라(시62:1-6) △하나님을 경외하라(시145:17-21) △하나님과의 언약에 서라(삼하23:1-5) △믿음으로 나아가라(마15:21-28) △인내로 소망을 이루라(롬5:3-4) △간절히 기도하라(히5:7) △생명의 은혜를 받으라(계22:16-17) △하나님을 앙망하라(사40:27-31)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라(빌4:10-20)고 강권한다.

"목회를 하다보면 종종 사람에게나 회사에 실망하고 국가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최 목사는 "포기해야 할 목록이 점점 늘어나는 세대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낸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고 했다.

저자가 '희망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연속적으로 설교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한 것은 역시 '복음'이다. 그는 이 책이 다양한 현대인들에게 '복음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나타나게 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자연 재해나 사회 범죄, 사회적 불행 결국 '죄' 때문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죄에 대한 인식' 필요한 시대

죄는 하나님의 목적을 왜곡하고 이 세상을 파괴하며 모든 관계를 허문다. 성경을 포함한 모든 종교에서도 죄는 악한 것이고 버려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현대처럼 죄에 대한 인식이 흐릿하고 죄를 합리화하는 시대에, 죄의 영향력은 더 막강하고 집요하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죄를 대적하기보다 죄를 먹고 마시고 취하여 즐거워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절대적 죄의 세력은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잔존하는 반군 세력이 그의 마음을 점령하려 한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이 죄 죽임의 교리를 실천해야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죄에 대한 인식과 원리와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한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활하고 강력하여 하나님의 샬롬을 파괴한다.

이 책의 저자는 칼빈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총장으로도 섬긴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다. 그는 이 책에서 전통적인 죄에 대한 정의와 해설을 할 뿐 아니라, 그 죄가 어떻게 문화를 장악하고 예술에 기식하며 역사와 철학을 속여 왔는지 심도있게 분석한다. 또한 죄가 단순히 인간의 내면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인간의 내면을 병들게 하여 파괴하는지에 머무르지 않고, 자연과 사회와 인류에 이르는 그 방법과 전개를 훌륭하게 펼쳐낸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1장 '샬롬이 파괴되다'에서는 죄는 만사의 당위적 존재양식을 거부하는 유책성 있는 샬롬의 훼방이라 정의하고, 선하고 조화로운 것을 파괴하는 죄의 역동성을 다룬다. 또한 2장 '영적 청결과 부패'에서는 부패는 영적 AIDS로서 신비하고 조직적이며 전염성 있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의 영적 면역체계를 공격하여 마침내 무너뜨리는 죄의 군단이라 말한다.

3장 '전도 오염 붕괴'에서는 전도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향해야 될 충성과 에너지와 욕구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도성을 짓는 데 써야 할 건축 자재를 우리의 성을 세우는 데 쓰는 것을 말한다. 오염은 건강한 실체에 이물질이 들어와 더러워지고 약화되는 것이며, 붕괴는 인격적·사회적 온전함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어떤 실체를 온전하게 하는 힘과 목적을 상쇄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죄 하나님의 샬롬
코넬리우스 플랜팅가 Jr.
복있는사람 | 349쪽

4장 '부패의 진전'에서 죄는 사물을 더럽히고 손상시키며 더 많은 죄를 낳는 생식 능력이다. 또한 죄는 여러 권세와 다양한 시대 정신에도 파고들고, 인간의 의도와 기억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도 침입하여 무기가 된다. 5장 '기식자'에서 죄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고 실체를 망치는 것이며, 유기체에 붙어사는 거머리이다. 그리고 죄는 바이러스처럼 숙주의 생명력과 역동성에 달라붙어 결실을 맺는다.

6장 '가장 무도회'에서 죄는 위조지폐에서부터 사기꾼의 표정에 이르기까지 위장을 하고 나타나 선의 신뢰성을 빨아들이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 사람들을 유혹한다. 7장 '죄와 어리석음'에서는 모든 어리석음이 다 죄는 아니지만 모든 죄는 다 어리석음인데, 죄는 건강에 좋지 않은 레시피이며 자동차에 넣으면 안 되는 연료요 택해서는 안 될 잘못된 길이다.

8장 '중독의 비극'에서 중독은 어떤 물질이나 행동에 복합적이고 점진적이며 해로울 정도로 열렬하게 집착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강박적으로 기분전환을 추구하는 것이다. 9장 '공격'에서는 거짓과 시기와 분노와 같은 죄가 어떻게 인간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황폐하게 하는지 잘 다룬다. 10장 '도망치기'에서는 역사적 실례를 들며 죄가 회피하는 8가지(순응, 공모, 의미축소 등)의 방법을 설명한다.

이렇듯 책은 죄에 대하여 교리적으로만 다루지 않고, 그 교리적인 죄가 어떻게 문화와 역사 속에서 실행되는지 실례를 들며 파고드는 해설서이다. 저자는 마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조카에게 인간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악마처럼, 죄의 본질과 성격과 권능을 잘 안다. 또한 죄가 인간과 집단과 사회와 역사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보여주어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지 소개한다.

책의 핵심과 주장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죄에 대한 인식이 흐려진 시대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많은 사람들이 죄는 단지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고 우리에게 불편한 결과를 주는 것이라 여긴다. 마치 인체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불쾌감을 주는 비위생적인 물건처럼 말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 죄는 큰 세력이고 대군으로서, 본질상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반감이며, 맹렬하고 대담하여 광기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해준다. 우리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연적 재해나 사회적 범죄와 사회적 불행을 보면 쉽게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은 치유 불가능한 것이니 우연적인 것이라 넘겨 버린다. 그러나 저자는 이것을 향해 무분별하고 어리석고 죄를 사랑한 인간의 대가라 하고,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으며 극복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세 번째는 책을 읽어보면 죄에 대하여 정의하고 비유하는 저자의 표현이 다채롭고, 분석 또한 탁월하다는 것이다. 죄를 정의하며 저자는 죄는 옷에 얼룩을 묻히는 것이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며, 죄는 발을 저는 것이고 길을 벗어나 헤메는 것이라고 하는 등 각 상황에 맞게 적절한 비유로 정의한다. 또한 죄에 대한 탁월한 분석을 하여 죄가 어떻게 상대를 박탈하고 파멸하는지 그 과정까지 다루고 있다.

필자가 이 책을 덮으며 죄를 정의한다면, '살피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교회와 이웃과 사회와 자연을 돌보지 않는 것이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곳이 마음이니 이곳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느슨하게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지키라는 것이다. 이 지역은 중립 지역이 아니고, 은혜도 역사하고 죄도 역사하며, 감화도 일어나고 탐욕도 일어나니, 치열한 전쟁터이다. 그러니 성을 지키는 군사처럼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청각과 시각을 유지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을 지혜롭게 지켜야 한다. 우리의 생각이 타락하지 않고 행동도 파괴적이지 않으며 모든 일에 내면적 동기가 더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간교하고 험악한 세력을 향해 복음의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는 삶이 일어나길 기대해 본다.

방영민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신앙 생활과 영성에도 개성이 있다

크리스찬북뉴스 추천도서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게리 토마스 | 윤종석 역
CUP | 304쪽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에서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꺼려왔다. 그래서 그 대용의 의미로 '경건'이라는 단어를 선호했다. 좀 더 살펴봐야 할 문제이지만, 결국 로마가톨릭의 '영성'과 개신교의 '경건'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전철을 밟으면서 '형식', '제도', '방식(방법)'의 의미들로 전락하면서, 20세기 개신교회에서는 '경건'이라는 단어보다 다시 '영성'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는 듯 하다. 물론 여기에는 수면 아래의 복잡한 신학적 변화들이 잠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영성'이라는 단어는 개신교회뿐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로마가톨릭에서조차 그 정의를 명료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영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에서 출발하느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이해의 방향이 결정된다. 본서의 저자는 영성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영성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서 영성을 '기능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성에 관한 이러한 책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과거 '은사'는 성령(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제자훈련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계에 대한 추구들이 일어났지만, 그것도 잠시 파라처치에서 반짝이다 제도권 교회의 성장주의 목회(목양이 아니다)에 흡수되면서 다시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은 목회의 도구와 기능으로 전락됐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했던 은사를 달란트로 변용하여 교회와 목회를 돕는 기능으로 다시 전환되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물론 기능적 측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은사'라는 단어가 가라앉고 '영성'이라는 단어가 현재 개신교회에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영성'이 기능적으로 설명되고, 이해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조심스럽다. 물론 본서의 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방법'이라는 '관계'에 방점을 두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9가지 방식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 과거의 은사적(기능과 능력) 관점에서 진일보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성의 9가지 기능과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

본서는 자연주의 영성, 감각주의 영성, 전통주의 영성, 금욕주의 영성, 행동주의 영성, 박애주의 영성, 열정주의 영성, 묵상주의 영성, 지성주의 영성 등 9가지 인간의 성향에 근거한 신앙생활의 주된 방식들과 각각의 차이들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위 분류 방식은 정통적인 기능적 영성 분류방식은 아니다. 일부분에서는 서로 중첩되거나 좀 더 다르게 분류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신앙생활의 특징과 성향들을 살피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한국교회의 상황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성도들 각각의 신앙생활에서 개성이 말살당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익히 알고 있듯 사람들의 얼굴, 모양, 키, 성격, 성품, 성향 등에서 동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처럼 하나님은 획일적이시라기보다는 다양하고 풍성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신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토양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서는 자신의 신앙생활 방식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첫 발판으로 충분하며,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다.

강도헌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 www.christianitydaily.com | THURSDAY, May 4, 2017 Vol. 99



More than 360 college students gathered at New Life Community Church in Artesia, CA for the fifth annual SOLA Conference from April 28 to 29.

Collegians Glean from the 'Solas'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BY RACHAEL LEE

Hundreds of college students from more than 40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gathered in Artesia from April 28 to 29 for the fifth annual SOLA Conference. More than a dozen pastors from several different churches work together to organize the conference for college students each year.

This year's SOLA Conference focused on the theme, "Here We Stand: Always Reforming," and focused on three of the five Latin 'sola' slogans that emerged during the Protestant Reformation as crucial elements of the Christian faith: *sola gratia* (grace alone), *sola scriptura* (scripture alone), and *soli deo gloria* (glory to God alone). This year also marks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It is our prayer to see collegians united around the essential reformation doctrines which affirm the authority of scripture alone, salvation by grace alone – through faith alone – in Christ alone, and to live for the glory of God alone," said the SOLA Conference organizers.

"Not only do we want to see a generation united around the gospel, we also want to see collegians continue the spirit of the Reformation, which declares that the church is always reforming," they continued. "As the culture continues to change, the church must be faithful to respond in biblical, contextual, and relevant ways."

While the meaning behind the 'solas' were emphasized during the general sessions, the ways in which they can be applied in modern daily life was explored during a panel session and breakout sessions.

Resonate Church pastor Ryan Kwon, Living Hope Community Church's college and teaching pastor Steve Bang Lee, and author and speaker Joshua Harris were featured as the main speakers during the conference, each exploring different 'solas.'

Ryan Kwon spoke during the first night on the topic of "grace alone." Speaking from Isaiah 54:1-10, Kwon noted that people: 1) are spiritually barren, and 2) pursue after "lovers" other than Jesus. However, he said, God's grace alone allow them to transform from spiritual barrenness to having spiritual life as born-again Christians, and God, by his grace, continually and graciously pursues after them despite their pursuit after idols.

God never deserts his people, and his grace "empowers us to live a victorious life," said Kwon.

"God is not ashamed of you," Kwon added. "In fact, he sings over you and he is so proud."

Steve Bang Le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ubmitting to the Bible as the ultimate and final authority during the morning session of the second day, as he spoke on the topic of "scripture alone."

"For all of us this morning there is a question," said Lee. "Is God's Word final in your life? Do you live in a way where scripture stands over as supreme, as the chief voice of your life?"

Even Jesus, who is God and the Word in flesh, submitted to and obeyed the scriptures, Lee said.

Yet, in order to live in such a way that reflects the authority of the Bible over one's life, he added, one must actually open up and read the Bible.

"If you deleted all of the Christian content in your brains other than the Bible itself, what would be left?" Lee posed to the collegians.

"The reformers were not trying to change the world – they were just trying to go back to the Bible."

During the final night, Joshua Harris emphasized that "God has done all the work of our salvation," and that that is the reason God alone deserves the glory.

Many times Christians may fall into thinking that glorifying God means having to achieve something great, he added. Instead, "share stories of your weakness," Harris said. "Show your scars."

"We cannot save ourselves," he went on. Glorifying God "is saying, 'We do not have what it takes, but let me tell you about Jesus.'"

Meanwhile, the conference also included smaller sessions which explored more specifically how those 'solas' could be applied in today's context.

Breakout sessions focused on topics such as understanding identity in Christ, transgenderism, and embracing the church, among others. A panel session explored questions Christian collegians may have regarding certain 'gray area' issues such as alcohol, consumption of media, marijuana, and relationships.

North Korea Freedom Week: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Is the Shortcut to Freedom'*

As the 14th annual North Korea Freedom Week took place in Washington, D.C., a 'World Congr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convened at the National Press Club on April 27, from 9:30 AM to 12:30 PM, during which speakers agreed that having a consistent inflow of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is the most effective path toward freedom in North Korea and a peaceful re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session featured experts in the field, including Dr. Katy Oh, Dr. Tara O, and Greg Scarlatoiu; defectors, including Kwang-Il Huh, Jeong-Hun Choi, Sang-Hak Park; and ambassador Jung-Hoon Lee.

In relation to freedom in North Korea, Jung-Hoon Lee emphasized the need to understand that North Korea is a nation in which information is strictly blocked, and to take an approach with that understanding. Experts must seek avenues through which information could be communicated and received by the North Korean people, such as North Korea's radio broadcasts.

"We've confirmed multiple times that through a consistent inflow of information, the state of affairs within the country has undergone much change," said Jeong-Hun Choi and Sang-Hak Park, who are both defectors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ivists. Specifically, disseminating flyers and using the loudspeakers, to which Kim Jong Un has been responding sensitively, have been significant in bringing about change, they said.

"Up until now, there have been many people rallying and standing up for freedom in North Korea, but this is the time that actual action must be carried out for change in North Korea," they continued. "For practical action steps to bring about change within North Korea, such as using the North Korean radio broadcasts, we ask for more proactive interest, and we also need the help of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Speakers also pointed out that in order for a substantive and peaceful reunification to occur, the Kim Jong Un dictatorship must change, and that Kim would "never give up nuclear weapons."

Regarding what preparations should be made for reunification, and how the North Korean people could be re-educated, Katy Oh pointed to focusing on re-educating members of the military. Some 4 percent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are in the military, she said, and the organization of the military could be used proactively to explain economics, banks, and other aspects that they would need to adjust to in Korean society to those within the military.

Greg Scarlatiou emphasized that Kim Jong Un is in actuality a god-like figure to the North Korean people, and that in order for the North Korean people to be able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up until now, Kim Jong Un must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ara O, who was in Germany when East and West Germany was reunified, said that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civilians allowed for a quicker integration among the residents of the East and West. Similarly, O said, interactions between generations and between those in North and South Korea must occur proactively and voluntarily.

North Korea Freedom Week began on April 26, and concluded on April 30.



As a part of the North Korea Freedom Week, which took place from April 26 to 30 in Washington, D.C., experts and defectors spoke at a 'World Congr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on how freedom in North Korea, and a peaceful re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could be achieved.

Annual Christian Dance Showcase Aims to Platform Talents for the Glory of God

'Rise Up' to take place for the fifth time and feature 16 Christian dance groups

BY RACHAEL LEE

For the fifth time, dozens of Christian dancers in Southern California will gather and showcase their dancing talent at Rise Up, a Christian dance showcase.

This year's showcase will take place on May 27 at the Marsee Auditorium in El Camino College.

The showcase started in 2013 initially as a platform for youth students at Kumran United Methodist Church who loved to dance – a platform which eventually grew to showcase the talent of over a dozen Christian dance groups. This year, the event will serve as a platform for 16 groups/individuals, including God's Image, Seeds of Worship, Sodium Project, V3, Sarah Hong, and others.

This fifth event is a year of many firsts for the showcase, according to Einston Han, the youth pastor at Kumran who has been the lead organizer of the showcase each year. For the first time, the event will be taking place at a location other than the church – the Marsee Auditorium. Organizers even launched a Kickstarter page and raised over $3,500 to fund the auditorium.

Rise Up will also, for the first time, be highlighting a non-profit organization at the event. Humans of Planet Earth (HOPE), a non-profit which aims to provide education and share the gospel to children living in poverty in Peru, will be featured during the event.

"The heart of Rise Up is not just for dancers to use their gifts to glorify God, but it's also to challenge this generation to rise up in all facets of their lives to glorify God and make an impact in this world," said Han regarding the decision to feature representatives from HOPE for the first time.

Han added that having an annual Christian dance showcase like Rise Up is significant because of a comparative lack of opportunity for Christians who have talents in the arts to be able to use it to contribute to the church.

Most churches incorporate dance in children's ministries and mission work, Han said, because "dance can communicate things we cannot verbally and in a sense crosses the boundary of culture and language."

"However, other than these moments, I rarely see the church emphasizing the art of dance in their churches," he continued.

Though Han hopes to see a growth in dance ministries in local churches, he said the ultimate hope he has behind this event in particular is that Christians with all types of talents would be encouraged to continue using those talents to glorify God.

"How awesome would it be if we saw in the next decade the top music artists, dancers, and others being unashamed Christians? What if Christians were setting the standard in terms of all of the arts in this generation?"

"That is a huge hope that I have for this event," Han said, "that it starts a larger movement in our generation."

Tickets can be purchased at the El Camino College Center for the Arts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visit facebook.com/riseupshowcase.



Seed of Worship Juniors was among the nine teams that participated in Rise Up in 2015. (Photo courtesy of Janis Rebecca Ahn)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Consecrating Openly Gay Bishop Is a Violation of Church Law, United Methodist Court Rules

The United Methodist Church's highest court ruled on Friday that consecrating a practicing gay bishop is a violation of the denomination's law.

In the 6-to-3 ruling, the UMC's Judicial Council referred to the denomination's bylaws, known as the Book of Discipline, saying that it "requires all clergy persons make a complete dedication to the highest ideals of the Christian lif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ir commitment to abide by and uphold the Church's definition of marriage and stance on homosexuality."

"An openly homosexual and partnered bishop is in violation of these minimum standards," the ruling states.



Delegates of the UMC's General Conference worship together during the 2008 General Conference. (Photo: BDB/Wikipedia/CC)

However, the Judicial Council added that the bishop's "constitutional right to fair and due process must be protected," and that her position will be maintained until the full disciplinary process against her is completed.

Though the petition to the court did not name a specific bishop, it revolved mainly around Rev. Karen Oliveto, who was consecrated as bishop in July of 2016 by the Western Jurisdiction to oversee churches in the Mountain Sky Area of the UMC. This region includes churches in the states of Colorado, Montana, Utah, Wyoming, and one church in Idaho.

The South Central Jurisdiction brought the petition to the Judicial Council, asking the Council to decide whether the consecration of an openly homosexual clergy is in violation of the Book of Discipline.

The issues surrounding human sexuality have been divisive in the denomination over the years. In the 2016 General Conference,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in the UMC, the denomination was set to decide whether it will make homosexuality acceptable.

However, it instead opted to form a commission that would deliberate on the issue. The General Conference, which usually meets once every four years, will have a special meeting in 2019 specifically regarding issues of sexuality.

Bishop Bruce Ough, the president of the UMC's Council of Bishops, encouraged members of the UMC to "honor the Judicial Council ruling."

"Yet," Ough added, "we acknowledge that the decision does not help to ease the disagreements, impatience and anxiety that permeates The United Methodist Church over the matter of human sexuality, and particularly this case. Our compassion and prayers of intercession extend to all those who are hurt, relieved, confused or fearful."

"We urge you to join your bishops in daily prayers for all United Methodists and for the denomination as we tenderly hold the unity and mission of the church in our hearts and hands," said Ough.

Supreme Court Dismisses Challenge to California's 'Gay Conversion Therapy' Ban

The Supreme Court rejected a request by a Christian minister and therapist to consider a case against a ban on the so-called gay conversion therapy in the state of California.

The dismissal that came on Monday is the second one that the high court has given in three years.

California adopted a law in 2012 prohibiting licensed therapists from offering sessions that are intended to change the sexual orientation of clients under the age of 18. The law was challenged initially on the basis that it violated rights to free speech, but that argument was rejected by a federal appeals court.

When the law was reviewed by the Nin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the judges ruled 3-0 that it was constitutional.

The court said that minors are free to seek such therapy once they turn 18, and that the law "regulates conduct only within the confines of the counselor-client relationship." Clergy still have freedom of speech and to practice their religion in church, the ruling states.

Donald Welch, a Christian minister and licensed therapist, sought to challenge the law at the Supreme Court this time on the basis that it violated rights to free exercise of religion, which the Supreme Court has declined to hear. Other plaintiffs who joined Welch included a psychiatrist and a man who had undergone gay conversion therapy.



On Monday, the Supreme Court rejected a challenge to the 'gay conversion therapy' ban in California. (Photo: Matt Wade/Flickr/CC)

"We are deeply disappointed by today's announcement, because it means young people in California and elsewhere will not be able to get the professional help they seek, due to political correctness," said Brad Dacus, president of Pacific Justice Institute, the legal group which represented the plaintiffs.

"This debate will continue, though, as other states consider similar bans on counselors' speech, and new court challenges will be filed against such bans," Dacus continued. "Ultimately, we believe the Ninth Circuit's reasoning will not stand the test of time, and we are committed to this battle for the long haul."

According to the Human Rights Campaign, similar laws banning gay conversion therapy exist in the District of Columbia, Illinois, Oregon, New Jersey, New Mexico, and Vermont.

Russia Included for the First Time in U.S. List of Countries With Most Severe Religious Persecution

Russia's use of laws to restrict religious freedom cited a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first time, Russia has been included in a list of countries noted for the most severe persecution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compiled by a religious freedom commission in the U.S.

The annual report published by the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 includes a list of "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a Tier 1 category which notes countries "whose government engages in or tolerates particularly severe religious freedom violations that are systematic, ongoing, and egregious."

This report is given to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list of countries mentioned in the report are the USCIRF's recommendations to the State Department to add to its own list of worst violators of religious freedom.

Regarding the first-time addition of Russia into the Tier 1 list, the USCIRF stated that the country's "continued use of its 'anti-extremism' law as a tool to curtail religious freedoms is one of the reasons USCIRF has recommended for the first time that Russia be designated as a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In 2016, Russia passed what is also known as the 'Yarovaya law,' which was aimed at prohibiting extremism in the country, but has been used to prevent religious groups outside of the Orthodox Church from evangelizing.

Thomas Reese, the USCIRF's chair, said that the Russian Supreme Court's recent ruling banning Jehovah's Witnesses in the country also "sadly reconfirms the disregard of the government for religious freedom in present-day Russia."

"Individual and community expressions of faith, and even private religious beliefs, are not safe from state-sponsored repression and coercion in Russia today," Reese was quoted as saying by the Baptist Press.

The report recommended 15 other countries in the CPC list, including Burma, Central African Republic, China, Eritrea, Iran, Nigeria, North Korea, Pakistan, Saudi Arabia, Sudan, Syria, Tajikstan, Turkmenistan, Uzbekistan, and Vietnam.

The report also had two other major changes, including having a first-ever list of "entities of particular concern" — non-state actors that exercise "significant political power and territorial control; is outside the control of a sovereign government; and often employs violence in pursuit of its objectives."

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ISIS), the Taliban in Afghanistan, and Al-Shabaab in Somalia were three entities that the USCIRF noted as EPCs.

Another noted change was that Egypt and Iraq, two countries which had previously been Tier 1, were noted as Tier 2 countries in this year's report. The USCIRF said that "improvements on religious freedom conditions" in the two countries had accounted for such a decision.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1:45 PM
Pastor Mitchell Perez
The Home Church
19100 E. Killian Avenu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아름다운 **대화기술**

"말은 많은데 대화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등에서 대화 부재와 대화의 비효능으로 인하여 겪는 부작용을 자주 보고 듣습니다. 대화는 인격과 인격이 상호 교류하는데 한 사람이 본래대로의 자신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또 본래대로의 상대방의 모습을 알려는 기능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많은 자살, 우리 주위에 만연하는 Stress, 여러 가지 신체적이지 않은 질병들 그리고 정신적 문제에 따르는 육체적 질병 등 이 모든 것이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름다운 대화 기술의 권위자이신 여천기 박사님과 여명미 박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반인반과 지도자 양성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오니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 주제

1. 하나님께 진 빚, 아름다운 대화기술
2. 장벽을 허무는 대화기술
3. 예수님 식 대화 기술
4. 대화 기술은 인간의 능력
5. 하나님이 쓰시는 실력자
6. 옥토마음 가꾸기
7. 기타 자기 관리
8. 대화문을 닫게 하는 언행습관
9. 우리세대의 대화 정서
10. 듣는 기술, 경청(귀담아 듣는) 기술
11. 대화습관
12. 말하기 기술
13. 심정 알아주기, 공감기술
14. "나 전달법" 내 마음(심정) 전달기술
15. 너 때문에 메시지(You-Message)
16. 인간관계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법 가이드
17. 심정표현과 감정표 사용
18. 지혜로운 질문기술
19. 격려하는 기술과 칭찬
20. 분노 표현 기술 Expression of Anger



여천기 박사
CHUN KEE RYU, M.D

- TEACHING APPOINTMENTS
  * Clinical Assistant Professor in Psychiatry, UCI Medical School.
  * Assistant Professor in Psychiatry in Residence, UCLA School of Medicine.
  * Instructor in Psychiatry, Chicago Medical School.
- COMMUNITY SERVICE AND ACTIVITIES
  * Provide extensive psychiatric education through lectures and presentations to Korean community groups, including churches, LIONS, women's groups, alumni groups, and senior citizen groups.
- HOSPITAL PRIVILEGES
  * Western Medical Center, Anaheim, California.
  * St. Joseph Hospital, Orange, California.
  * Western Medical Center, Santa Ana, California.
  * Santa Ana Psychiatric Hospital, Santa Ana, California.
  * Fountain Valley Hospital, Fountain Valley, California.



여(김)명미 박사
Myun g Mi Ryu, M.D

-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68년 도미
- 미국 가정주치의 1977/ 임상병리학 전문의
- 미국캘리포니아 푸른초장의 집설립: 이사장/소장 1993- 2000
- 가주신학대학원, 에반겔리아 대학 강의
- 미주 복음방송 GBC / Radio Seoul 1650AM Guest Speaker
- 미국캘리포니아 ABC상담 대화교육원 설립 2009, 대표
- 저서 "이런대화가 삶을 바꾼다(공저)
- 상담 교육가/ 초청강사
- 뇌 정신질환과 정신건강(Mental Illness Ministry)교육자
- 미국캘리포니아 NAMI Family to Family 강사
- 대화강사 훈련강사

▪대화 강좌_ 참가비 $30

날짜 : 2017년 5월 16일(화)
시간 : 오전 10:00 ~오후 1:00(주부, 평신도 누구나)
오후 2:00 ~ 오후 5:00(목회자, 사역자, 신학생 등)

▪지도자 양육 대화 강좌 - 20시간 수강을 마치신 분께 대화지도자 수료증 발급

참가비 : $200(교재비, 점심식사 포함)
일시(1차) : 2017년 5월 25일(목) 오전10:00 ~오후 4:00
일시(2차) : 2017년 6월 1일(목) 오전10:00 ~오후 4:00
일시(3차) : 2017년 6월 8일(목) 오전10:00 ~오후 4:00
일시(4차) : 2017년 6월 15일(목) 오전10:00 ~오후 4:00
장소 :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등록 및 문의 : T.(213)434-1170



주관 : ABC 상담 대화 교육원 **주최 : 기독일보**

아름다운 **대화기술**